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57호 【루계 제25135호】 주체104(2015)년 12월 23일 (수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조선의 2015년—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영웅신화를 창조한 위대한 헌신의 장정

올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세계 연 5만여개 출판보도물들이 보도, 진보적인민들 열렬히 칭송

온 한해 세계의 이목은 동방의 나라,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조선속도, 조선시간으로 세기적인 기적과 위훈을 수놓아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로 집중되였다.

이 땅 어디에나 꽃꽃이 살아맥박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백절불굴의 신념과 배짱, 투지를 백배해주었고 그 힘에 떠받들려 이룩된 거창한 창조와 변혁들은 70년을 추억하는 조선로동당의 력사에 자랑찬 한페지로 아로새겨졌다.

조선에서 흘러간 날과 날들을 대하며 세인들은 위대한 사상이 분출하는 무한대한 힘을 절감하였고 세계 연 5만여개 출판보도물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애국애민의 헌신의 자욱을 광범히 보도하여 국제사회계로 하여금 거대한 위인칭송열기로 들끓게 하였다.

백두의 넋으로 천만군민을 불러일으키신 분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 우리 군대와 인민은 2015년의 나아갈 길을 밝혀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받아안았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갈데 대한 령도자의 부름을 불타는 심장마다에 새기였다.

조선에서 울려나올 새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세계언론들도 끝없는 격동속에 일제히 보도전을 폈다.

불과 며칠사이에 로씨야, 꾸바, 웰남, 이란, 라오스, 일본, 영국, 이딸리아, 미국, 페루, 칠레, 남아프리카, 잠비아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의 1만여개 통신, 신문, 방송, 잡지, 블레찐, 인터네트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속보로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 자신심과 정열에 넘치신 음성으로 신년사를 하시였다.》, 《**김정은**각하께서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2015년을 위대한 승리의 해로 빛내일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나라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을 벌릴것을 호소》…

언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방대한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할것을 강조하신 부분에 특별한 주목을 돌리였다.

전파를 타고 온 우주에 울려퍼진 신년사는 진보적인류의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위원장과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등 각계 인사들, 정당, 단체, 국제 및 지역기구들은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릴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면서 우리 인민의 위업에 굳은 련대성을 보내였다.

자애에 넘치신 연설로 온 나라 가정들, 어린이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주신 우리 원수님께서 신년사를 마치시는 길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시였을 때 그이의 첫 현지지도를 주시하던 세계가 예측할수 없는 감격적인 소식에 또다시 끓어번지였다.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고 후대들을 더없이 사랑하시는 **김정은**각하의 숭고한 인민관, 미래관에 머리가 숙어진다.》,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무수한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령도자를 따라 조선의 평범한 인민들이 어떻게 정신력을 폭발하는지, 어떻게 기적을 안아오는지 세계는 보게 될것이다.》…

언론들은 대소한의 강추위도, 삼복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류원신발공장, 원산구두공장, 평양화장품공장,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정성제약종합공장,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로, 창광상점과 종합봉사선 《무지개》호에로 잇닿아지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소식들을 빠짐없이 전하였다.

가시는 곳마다, 찾으시는 단위마다 백두의 넋을 심어주시고 온 나라에 백두산칼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쳐 련일 새로운 건설속도, 영웅신화, 《이채어경》을 낳게 하신 친출위인의 혁명활동은 만사람의 찬탄을 자아내는 특대소식이였다.

슬로벤스꼬의 시민단체 《브즈도르》가 인터네트홈페지를 개설하고 백두산절세위인의 혁명활동소식과 영상사진문헌들을 모신 사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이 현지지도소식들을 정상적으로 보도하는 홈페지를 내온 사실이 이를 뚜렷이 실증해준다.

언론들은 전군에 차넘치는 백두의 훈련열풍속에 군인들을 일당백의 만능병사로 키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투철한 혁명적신념과 견인불발의 의지로 일관된 선군길도 따라가며 보도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를 지도하시고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서 축하연설을 하신 소식을 특집하였는가 하면 선군조선의 첫 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의 훈련성과를 축하해주시는 사진문헌들, 최첨단수준에서 개발된 신형반함선로케트시험발사,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보시는 사진문헌들, 황금해력사창조의 고향에 차넘치는 사회주의바다향기를 맡으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사진문헌들도 정중히 모시였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조선령도자의 현지지도는 인민적이고 다심하신 모습으로 일관되여있다, 령도자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조선에서는 사변적인 성과들이 끊임없이 이룩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오로지 승리만을 떨쳐온 조선혁명의 전로정은 사상의 힘이 무한대하다는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조선인민은 그 폭과 깊이를 알수 없는 사상의 힘으로 경제강국, 과학기술강국, 체육강국 등 각방면에서의 강국의 지위를 목표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고 평하였다.

쿠웨이트신문 《알 안바》는 조선이 강한 나라로 세계에 비쳐지는것은 수령의 현명한 령도, 위대한 정신의 빛나는 계승에 그 비결이 있다고 하면서 **김정은**령도자를 모시고 전세대들의 혁명정신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조선은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수 없는 강국으로, 자주의 성새로 더욱 빛을 뿌릴것이라고 썼다.

령장의 완강한 의지, 담력과 배짱의 과시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전투비행사들이 항일혁명선렬들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로씨야의 따쓰통신)

《**김정은**제1비서께서 백두산정에서 해돋이를 부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은 그 어떤 핵무기의 위력에도 비할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량식을 안겨주는 길이라고 하시였다.》(일본의 교도통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에 오르신 소식을 캄보쟈신문 《뀩 쏜 때피앱》, 인디아의 NDTV방송, 로란드의 데페아통신, 영국의 BBC방송, 미국잡지 《타임》, 페루신문 《엘 꼬메르씨오》, 유럽TV방송 《유로뉴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의 출판보도물들이 앞을 다투어 전하였다.

수많은 텔레비죤화면들과 인터네트홈페지들, 출판물의 지면들에는 백두산칼바람을 한몸에 맞으시며 산정에 거연히 서계시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 진한 불덩어리가 솟구치며 시작되는 장쾌한 해돋이를 부감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영상들,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과 한데 어울리시여 뜻깊은 기념촬영을 하시는 동영상들이 정중히 모셔졌다.

그야말로 세계의 초점은 조선으로, 백두산으로 쏠렸다.

조선의 최고령도자의 백두산행보가 시사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인도네시아의 《국제일보》는 그 해답을 백두의 눈보라에서 찾았다.

《백두의 눈보라는 살을 베는듯 한 눈가루, 얼음가루의 돌풍이 천지를 휩쓰는 말그대로의 칼바람이다.

지동치는 백두의 칼바람속에서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미소를 지으시였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적대세력들의 대조선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던 때 밀려드는 적의 대군을 발밑에 굽어보시며 백두산에 오르신 그이의 미소는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의 표시라고 해야 할것이다.

돌이켜보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거이후 **김정은**령도자께서 걸어오신 길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에도 끄떡없이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조선을 승리에로 이끄신 완강한 의지의 전투행로라고 할수 있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는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시고 강성국가건설을 진두지휘해오신 격렬한 공격전의 나날이였다.

이 나날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그 누구든 조선의 자주권을 건드리는것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백두의 칼바람과도 같은 초강경대응으로 단호히 짓뭉개버리시였다.》

세계는 백두의 혁명전통을 최상의 경지에서 계승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느꼈고 그이따라 백두산으로 오르는 우리 인민뿐아닌 진보적인민들의 끊길줄 모르는 발걸음소리를 들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눈보라한생이 어려있는 태양의 성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의 미래, 력사의 방향타를 정하신 백두산에 오르는것을 한결같은 소원으로, 희망으로 간주해온 로씨야련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일군들은 저저마다 새날의 탄생을 알리는 백두산해돋이를 부감하며 이름할수 없는 감정을 체험하였다.

동맹 연해변강위원회 비서는 백두산의 맑은 공기를 마시고 천지의 장쾌한 모습을 보면서 백두정신에 대하여 느낄수 있었다고 하면서 백두산에 오른 흥분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맞으시였던 백두의 칼바람을 직접 체험하였다. 백두의 정신은 오직 백두산에서만 체험할수 있고 백두의 칼바람을 통해서만 체득할수 있는것이다. 백두의 칼바람속에서 체득한 혁명적인 감정을 로씨야에 안고갈것이다.》

조선의 영원한 정신인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삽시에 만사람의 심금을 세차게 틀어잡았다.

지난 8월 조성된 위험천만한 정세에 대처하여 긴급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은 온 행성을 들었다놓았다.

불의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하달.

천만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역경을 맞받아나가시는 백두령장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의 뚜렷한 과시에 세계는 경탄하였고 숨을 죽이고 조선반도정세를 지켜보았다.

출판보도물들은 《온 세계가 또 한분의 백두령장을 보았다.》, 《결사의 조국수호정신, 치솟는 보복의지의 분출》, 《조선 미국과 남조선에 무자비한 타격 경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소식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가 전해진 하루동안 100여만명의 청년들 인민군대 입대, 복대 탄원》과 같은 내용들로 하루에도 몇차례씩 비상확대회의소식을 특별보도로 전하는가 하면 전쟁이라는 재난의 난파도앞에서도 변심을 모르고 조선로동당만을 굳게 믿으며 멸적의 의지로 서리발총검을 억세게 틀어잡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모습을 소개하였다.

조선반도 8월사태의 기간은 실로 령도자를 닮은 천만군민이 죽어도 변치 않을 혁명신념으로 력사의 돌풍을 과감히 뚫고온 신념과 의지의 나날이였고 전세계가 조선의 정신과 기개를 다시한번 알게 된 나날이였다.

위대한 정신력의 산아—영웅신화, 전화위복의 기적

세계의 관심은 영웅청년신화가 창조된 백두대지에로 모아졌다.

지난 10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미더운 청년들이 백두청춘의 담력과 용맹으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백열전을 벌려 10년동안에 한 일과 맞먹는 방대한 작업과제를 불과 120여일동안에 해제낀데 대해 조선청년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영웅청년신화라고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나라들은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러운 청춘대기념비를 훌륭히 완공한 세상에 없는 청년대군을 가진 나라, 당이 바란다면 피끓는 심장을 아낌없이 불태우는 활력있는 청년부대를 가진 조선을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자본주의의 반인민적폭정과 부패문화의 후과로 채 피여보지도 못한채 쓰러져가는 청년들, 살인과 략탈, 온갖 범죄가 살판치는 비인간적인 사회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청년문제해결, 하여 더더욱 미래가 암담한 자기 나라들의 처지를 주체의 청년강국인 사회주의조선의 현실과 대비해보았다.

세계는 조선의 북변 라선땅에서 일어난 전화위복의 기적에 다시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무섭게 덮친 큰물, 너무나 참혹한 재난앞에 커다란 우려를 표시했던 사람들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라선시피해복구사업을 중요의제로 토의하도록 하시고 인민군대에 그 과업을 맡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애민정치에 감복하였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전투명령서를 더없는 믿음으로 받아안은 인민군군인들이 라선전선을 전개하고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단 기세로 복구전투를 벌려 상상을 초월하는 그처럼 짧은 기간에 새로운 신화를 창조한 라선땅의 전변.

우리 원수님께서 직접 현지에서 피해복구전투를 지도하신데 이어 큰물피해를 완전히 가신 기적의 선경마을을 보시려 머나먼 하늘길, 배길, 령길을 달려 라선시 선봉지구 백학동을 찾으신 소식, 하많은 국사도 뒤로 미루시고 라선전역의 위훈창조자들을 무려 1시간 30분동안이나 기다려주신 소식은 전세계에 급속히 전파되여 만사람의 깊은 감동을 자아냈다.

열화같은 사랑과 믿음, 정으로 가득찬 일심의 화원에 날마다 탄생하는 기적을 두고 세상사람들은 《인민의 꿈과 리상을 꽃피우시려는 **김정은**령도자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결정체》, 《령도자를 받들어 세계문명을 앞서나가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우며 건설의 대번영기를 안아온 조선의 천만군민》, 《조선에서의 기적은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고 격찬하였다.

한편 각국 언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훌륭히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신 소식, 당의 건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이 완벽하게 반영된 국보적인 건축물인 과학기술전당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보도하면서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의 위력을 찬양하였다.

로씨야신문 《로씨스까야 가제따》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령도에 의해 조선에 교육자, 과학자들을 위한 미래과학자거리가 건설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미래과학자거리는 조선의 교육자들과 과학자들에게 안겨주는 조선로동당의 또 하나의 은정어린 선물이다.

조선에서는 훌륭한 조건을 갖춘 현대적인 살림집을 교육자, 과학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주고있다.

만일 자본주의나라 사람들이 조선인민이 어떻게 살고있는가를 정확히 알게 된다면 그 나라 정부는 다음날로 전복될것이다.

수십억의 인구가 사용하고있는 인터네트홈페지들에 미래과학자거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올라 대인기를 끌고있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인터네트홈페지는 최신과학기술보급거점인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를 통하여 과학기술발전을 강성국가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사로, 나라의 전도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이에 큰 힘을 넣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정책에 대해 잘 알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칠줄 모르는 정력으로 천지개벽, 천도개벽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터친 인민의 환호성—사회주의만세, 로동당만세소리가 누리를 진감한 10월에 세계는 내 조국 이르는 곳마다에 도도히 굽이치는 혼연일체의 대하를 목격하였다.

너무나 평범하고 어디서나 볼수 있는 소박한 인민을 위해 자신의 온넋과 열정을 깡그리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영광의 대축전장에서 하신 연설이 국제사회에 준 충격은 비할바없이 컸다.

마디마디 위인의 애민관, 인민관이 어려있는 연설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유럽을 비롯한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와 지역들에로 즉시즉시 전해졌고 인류의 마음속에 사랑의 메아리가 되여 울려퍼졌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인터네트홈페지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연설에 접하고 고마움에 인민이 울고 조선의 방방곡곡이 격정에 휩싸이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세상에 국민을 위한다고 부르짖는 지도자들은 많지만 **김정은**원수님같으신 인민의 어버이는 그 어디에도 없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을 위해 오셨고 인민을 하늘로 여기신다. 그이의 하루하루는 인민의 아들로서의 헌신의 나날이였고 그이의 로고는 인민의 행복으로 이어진 하루하루였다. 수령은 〈우리 인민〉이라고, 인민은 〈우리 원수님〉이라고 부르며 사회주의대가정을 이룬 나라, 인민으로 시작되여 인민으로 일관된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참으로 지나온 한해는 중첩되는 온갖 시련과 난관도, 겹겹이 달려드는 원쑤들의 발악적인 책동도 과감히 물리치며 자기의 령도자를 따라 영원히 한길만을 가려는 조선인민의 결사의 각오를 세계가 절감한 해였다.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백두의 넋을 심어주시고 당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도록 하시기 위해 불철주야로 단행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헌신의 장정을 전세계가 따라선 해이기도 하다.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위대한 어버이를 모시여 부강번영하는 조선이여 세세년년 빛나라!》

조선에서 다계단으로 일어난 2015년의 기적과 변혁을 목격한 세계 진보적인류가 터친 이 찬탄의 목소리는 온 행성에 더 높이, 더 힘차게 울려퍼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국가품질감독위원회 산하단위 책임품질감독원 림희순은 선군시대공로자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서 위훈을 창조해가는 922건설돌격대원들을 여러차례 지원하여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받들고 평양단고기집 로동자 강은경은 세포땅을 사회주의청춘대지로 전변시키는데 한몫할 열의를 담아 정성껏 마련한 후방물자들을 건설장에 보내주었다.

개성시인민보안서 인민보안원 현배영은 세포지구에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 굴지의 축산기지를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할 불타는 마음안고 돌격대원들을 위해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지난 기간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여온 사리원시 은덕동 11인민반 서옥희는 대규모축산기지건설지원에서도 모범을 보여 대중의 존경을 받고있다.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라선시 라진지구인민위원회 책임부원 김송죽은 세포땅의 전변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돌격대원들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였다.

라선시 라선혜성옷공장 로동자 황경호도 건설에 함께 참가한 심정으로 많은 자재와 물자들을 공사장에 보내주어 돌격대원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커다란 격정속에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에 간직하고 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한 일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영국준비위원회 결성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영국준비위원회가 11월 21일 런던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영국신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엔디 브록스가, 서기장으로 영국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더모트 하드슨이 선출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를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10일에 진행되였다.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싸쉬 우말라또바는 발행식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의 전체 당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그이를 뜨겁게 회고하고있다.

김정일동지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수호하시였으며 조선을 핵보유국, 우주강국으로 전변시키신 선군령장이시다.

그이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그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인민의 어버이이시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서거 4돐에 즈음하여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작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를 출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로선을 확고히 틀어쥐시고 그이의 위업을 계승해나가신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를 도이췰란드 베를린 아차위메디아프린트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단행본의 머리글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4돐에 즈음하여 특별출판

2015년 12월 17일은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서거하신 4돐이 되는 날이다.

이날에 즈음하여 편집부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를 출판한다.》

로작발행식이 11일 출판사에서 진행되였다.

출판사 사장은 발행식에서 한 연설에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정치로 조선을 천하무적의 강국,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조선인민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데 대해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인민뿐아니라 진보적인류는 **김정일**동지를 절절히 그리며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돌이켜보고있다.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 그대로이신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강성국가건설에서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하고있으며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꿋꿋이 전진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사소한 동요나 주저도 없이 자기 손으로 행복한 생활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

본사기자

《어머님께서 건군력사에 남기신 공적은 참으로 큽니다.》 김 정 일

선군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펼쳐주신 위대한 혁명가의 고귀한 업적

하많은 추억을 불러주는 12월, 한없는 그리움으로 가슴적시는 이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들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로 달린다.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한생을 더듬어볼수록 총대로 혁명의 사령부를 결사옹위하신 전설같은 이야기와 더불어 선군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가꾸신 어머님의 고귀한 업적이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을 뜨겁게 적셔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어머님께서는 내가 어렸을 때 늘 나에게 어서 빨리 커서 위대한 수령님을 잘 받들어모셔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예로부터 력사에 이름을 떨친 위인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고 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는 이 세상 그 어느 어머니도 따르지 못할 열화같은 사랑과 정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백두산의 아들로, 성격과 기질도, 감정과 정서도 백두산을 닮은 탁월한 령장으로 키워주신 자애로운 스승이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백두산밀영고향집에서 어머님으로부터 총에 대한 심원한 원리를 배우셨다고 하시면서 내가 태여나서 처음으로 몸에 덮은것은 어머님의 군복이였고 내가 처음으로 손에 쥔것도 어머님의 권총이였다고, 그때 나는 유격대원들과 같이 굶고 같이 엎고 달콤한 폭잠과 따스한 우등불의 귀중함도 간절하게 느끼며 자라났다고 교시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 할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물려주신 두자루의 권총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혁명의 총대력사에 대하여 늘 이야기해주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이어갈 드팀없는 신념을 심어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건군사업을 보좌해드리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군인들의 열병식훈련장과 사격훈련장을 찾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장군님께 권총을 쥐여주시며 사격동작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으며 명사수가 되여야 위대한 수령님을 잘 보위해드릴수 있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조준격발법을 배워주시면서 어머님께서는 과녁이 없이 아무데나 대고 첫 사격을 해서는 안된다, 큰뜻을 가지고 사격을 해야 한다, 어머니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첫 사격날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끝까지 혁명할 결심을 다지면서 일제놈들을 몰살시켰다, 나는 그날에 다진 맹세를 지켜 이 권총을 억세게 틀어잡고 수령님을 목숨바쳐 보위하여왔다, 너도 어서 커서 이 권총으로 아버님을 보위하고 높이 받들어모셔라, 나는 네가 아버님처럼 훌륭한 장군이 되기를 바란다고 간절히 당부하시였다.

주체36(1947)년 가을이였다.

그때 인민군대에서는 다음해에 있게 될 열병식을 앞두고 새 군복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진짜군복을 입고싶어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소원을 헤아려보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장군님의 군복을 마련해주시였다. 군복은 조선인민군 장령복처럼 모자와 바지 그리고 소매끝에도 붉은 줄들을 띄웠는데 척 보기에도 보통옷이 아니였다.

장군복을 입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너무도 기쁘시여 점심시간에 댁으로 들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 거수경례를 드리시였다. 이 광경을 대견스럽게 바라보고계시던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군복을 입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군복을 입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시며 이 군복을 입고 우리 나라를 튼튼히 지키고 빛내이겠다는 굳은 마음을 키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렇듯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한벌의 군복을 놓고서도 위대한 장군님께 총대의 사명감을 깊이 새겨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의 다심하신 손길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뛰여난 경마술과 사격술에도 어리여있었다.

해방직후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말을 타고싶어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을 대견하게 여기시며 어린 나이에 말을 혼자 타겠다고 하는것은 남아다운 기질이라고 하시면서 장군님께 말을 타는 법도 배워주시였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해방직후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종종 사격장에 나가시여 총도 쏘아보시고 경위대원들의 사격훈련을 지도해주기도 하시였다.

어느날 사격장에 나가 총을 쏘시는 아버님과 어머님을 유심히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도 총을 쏴보겠다고 하시였다.

경위대원들도, 사격장의 근무성원들도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 짬짬이 조준련습을 시키는것을 보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형권총에 탄알을 재워 장군님의 손에 쥐여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장군님의 팔을 잡고 사격좌지로 가시여 총쏘는 자세도 바로잡아주시고 사격하는 방법도 알려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크게 뜨신 한눈으로 목표판을 보시다가 련이어 세방의 총성을 울리시였다.

그 나이에 총성을 울린것만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세발 다 목표판을 맞히신 장군님의 사격모습을 지켜보고있던 경위대원들과 사격장 근무성원들은 일시에 탄성을 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비범한 군사적자질을 소유한 탁월한 령장으로 키우시기 위해 마음기울이신 김정숙어머님의 로고와 심혈에 대한 이야기는 이뿐이 아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해방후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인민군대의 각 군종, 병종부대들을 찾으시여 알고싶어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심으로써 장군님께서 군사분야의 모든 장비들과 기술수단의 능력과 제원, 작용원리들을 환히 꿰들도록 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령장의 천품을 타고나신 위대한 장군님께 백두산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해주시면서 백두의 장엄하고 억센 기상을 체현하도록 하시였으며 정일봉에 오르시여서는 백두산의 천만산악을 한눈에 바라보시며 천하를 쥐락펴락하는 통이 크고 대담한 성품을 키워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생의 마지막시기에도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옷장에 소중히 간직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군복을 꺼내여 손질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이 옷은 아버님께서 항일혈전의 나날에 입으셨던 군복이다, 아버님은 나라를 찾아주시고 우리 인민들이 다 잘살수 있게 보살펴주시는 위대한분이시다, 아버님께서 건강하셔야 우리 나라가 튼튼해지고 인민들이 더 잘살수 있게 된다.

김정숙어머님의 이 말씀에는 위대한 수령님은 곧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시라는 깊은 뜻과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해나가실것을 바라시는 크나큰 기대와 념원이 담겨져있었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을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적예지와 지략, 군사가적풍모를 그대로 체현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것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주체의 혁명무력건설사에 쌓으신 최대의 공적이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생전에 김정숙동무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을 미래의 령도자로 키워 당과 조국앞에 내세워준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선군태양을 받들어올리신 혁명의 어머님 김정숙동지,

경건히 우러를수록 선군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불멸의 공헌을 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더욱 사무치게 안겨온다.

여러해전 12월 24일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에 대해 추억하시면서 우리 어머님처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적 복무정신, 한없이 숭고한 인정미와 소탈한 인민적품성을 지니고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고귀한 한생을 바친 그런 녀성혁명가는 이 세상에 없다고 뜨겁게 추억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어머님께서 우리곁을 떠나신지 반세기가 넘지만 지금도 우리 인민들은 물론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어머님을 그리며 항일의 녀성영웅, 백두산의 녀장군,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 절세의 위인으로 높이 칭송하고있으며 해마다 어머님의 탄생일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다고 하시였다.

그렇다. 강성번영할 백두산대국의 래일을 축복해주시며, 무궁번영할 선군조선의 래일을 그려보시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는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

글 본사기자 김 일 권
사진 본사기자 김 진 명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새겨가는 참관자들 —회령혁명사적지에서—

오산덕에 넘치는 해빛같은 미소

오늘도 이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이 모셔져있는 오산덕기슭에로 끝없이 달린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뜨거운 축복을 보내시는가 만면에 넘치시는 위대한 어머님의 해빛같은 미소…

날아오는 적탄을 몸으로 막아나서신 친위전사의 위훈을 전해주며 혁띠에 소중히 채워져있는 권총, 찬란한 조선의 미래를 상징하며 위대한 어머님의 가슴에 안겨 활짝 피여난 216송이의 진달래, 항일의 녀성영웅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듯 군모의 오각별도 유난히 빛을 뿌린다.

유서깊은 회령!

봄이면 백살구꽃 만발하고 겨울이면 오산덕의 서리꽃 또한 유정하여 예로부터 함북명승이라 일러오는 곳이지만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백두산녀장군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더불어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얼마나 소중하고 뜨겁게 간직되여있는 력사의 고장인가.

항일의 나날 피어린 격전장과 고난의 행군길에서도 언제 한번 잊은적 없으시였고 해방된 조국땅에서도 항상 마음속으로 그려보시던 고향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린시절의 다섯해밖에 이곳에 계시지 못하시였다.

하지만 그곳은 백두산녀장군께서 즐겨부르시던 《사향가》의 선률에 실려 늘 그이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은 조국이였고 위대한 녀성혁명가의 불멸의 업적과 더불어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자리잡고있는 곳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머님의 삶이 그처럼 빛나고 값높기에 오늘도 우리 인민들은 어머님을 못 잊어 뜨겁게 추억하며 그리워하고 있는것입니다.》

우리 인민들 누구나가 유서깊은 회령의 오산덕마루에 오르면 백두산녀장군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지고 크지 않은 꽃나무 한그루에서도 혁명의 어머님의 숭엄한 체취가 풍겨오는듯싶어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해한다.

일찌기 애국적가정에서 탄생하시여 갖은 고생을 겪으시며 나라잃은 설음을 뼈아프게 체험하신 위대한 녀성혁명가 김정숙동지,

저 멀리 두만강의 망양나루터에서 조국땅을 마지막으로 하직하시며 고향을 떠나시던 그때로부터 항일의 피어린 격전장들과 건설의 노래드높은 해방된 조국에서 수령결사옹위의 거룩한 자욱, 위대한 충신의 모습을 수놓으신 전설적녀성영웅의 불멸의 업적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으랴.

백두산녀장군께서는 그 어느 한순간도 고향 회령을 잊어본적 없으시였다.

낳아주고 키워준 고향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천고의 밀림속을 헤쳐가시던 백두산시절 조국의 모습으로 고향땅 회령을 뜨겁게 그려보군 하시던 김정숙동지이시였다.

조국해방의 머나먼 길을 헤쳐오신 김정숙동지께서 고향땅 회령이 있는 함경북도에 계실때 고향에 가보고싶으신 생각은 얼마나 간절하시였으랴.

회령에 먼저 다녀오실것을 간청드리는 투사들에게 동무들의 마음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십시오, 나라가 해방되였어도 아직 우리 인민의 생활이 어렵고 할 일이 많은데 어찌 고향부터 찾겠습니까라고 하시면서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선 로동계급을 찾으시였던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

정녕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을 충정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성스러운 조선혁명사의 갈피마다에 얼마나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는가.

환하게 웃으시는 김정숙동지의 모습은 조국과 혁명, 동지들과 인민을 위한 위대한 헌신과 희생의 아름다운 해발로 내 조국강산에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강성조선의 미래를 축복하시며 밝게 웃으시는 백두산녀장군의 해빛같은 미소는 오늘도 위대한 한생의 찬란한 빛발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무한히 고무해준다.

본사기자 강 철 남

수 필

어머님의 권총

언제인가 회령시의 오산덕기슭에 모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찾았을 때였다.

한 일군이 김정숙동지의 동상은 처음에 조선치마저고리를 입으신 모습으로 형상하였댔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군복을 입은 모습으로 형상하여야 어머님의 혁명생애와 잘 어울린다고 교시하시여 지금의 모습으로 형상하였다고 알려주는것이였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우러르느라니 선군혁명의 길에 별처럼 빛나시는 백두산녀장군의 거룩한 혁명생애가 더욱 뜨겁게 되새겨졌다.

오늘도 항일의 군복차림으로 권총을 차시고 봄빛같은 미소를 짓고계시는 김정숙동지,

남달리 총대를 사랑하시고 총대와 더불어 조선혁명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백두산녀장군의 거룩한 한평생이 그이께서 차고계시는 권총에도 얼마나 소중히 담겨져있는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어머님은 한생을 총대와 같이 살아오시였습니다.》

백두산녀장군의 권총에 대해 생각하느라니 한 일군이 들려주던 이야기가 떠오른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이 선포된 뜻깊은 해의 어느 봄날에 있은 일이라고 한다.

한 일군을 몸가까이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붉은 천에 갑채로 정히 싸여있는 한자루의 권총을 보여주시면서 이 권총은 어머님께서 나에게 물려주신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어머님의 유물입니다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권총은 어머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사용하신 총이다, 어머님께서는 이 권총으로 수천수만발의 탄알을 쏘았을것이고 그 탄알에 맞아 꺼꾸러진 왜놈도 수없이 많을것이다라고 하시며 이렇게 강조하시였다.

나는 이 권총을 언제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있습니다. 이 권총은 수령님을 잘 보위하고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나의 마음의 영원한 기둥입니다. …

누구는 명예를, 누구는 재부를, 누구는 한생의 교훈을 후대들에게 넘겨준다고 한다. 그러나 항일의 초연에 그슬린 한자루의 권총을 가장 소중한 유산으로 위대한 장군님께 물려주신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토록 간직하시고 어머님이 그리우실때면 꺼내보군 하시던 사연깊은 그 권총이 백두산녀장군께서 오늘도 차고계시는 권총으로 우리의 눈앞에 소중히 어려온다.

돌이켜보면 김정숙동지께 있어서 총대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정의 최고표현이였다.

일찌기 항일무장대오에 들어서시던 력사의 그날 펄펄 휘날리는 붉은기아래서 혁명의 총대를 받아안으실 때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런 맹세를 엄숙히 다지시였다.

이 총을 잡고 김일성장군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총 한자루를 백자루로 알고 잡으며 이 총알 한발을 백발로 알고 원쑤를 쏘겠습니다.

그때로부터 어머님께서 울리신 총성은 단순히 적을 꺼꾸러뜨리는 멸적의 메아리만이 아니였다.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사령관동지의 안녕을 지켜드리는 수령결사옹위의 명중탄이였다.

지금도 조용히 귀기울이느라면 항일전의 그 나날로부터 울린 잊지 못할 총성들이 쟁쟁히 울려오는듯싶다.

오산덕기슭에서 어머님 차고계시는 권총은 대사하치기며 잘 루목에서 조선혁명을 보위하여 원쑤들에게 불을 뿜던 그 권총이리라. 해방조국의 첫 기슭에서 수령결사옹위의 철리를 새겨주며 삼일포의 총성을 울리던 그 권총이리라. …

한몸이 그대로 성벽이 되고 방패가 되시여 원쑤격멸의 총성을 울리시던 백두산녀장군의 그 불같은 모습에서 우리 인민은 전설적인 호위장군의 거룩한 위인상을 처음으로 뵈왔고 력사는 자기의 페지에 수령결사옹위의 첫장을 자랑스럽게 새겨넣었다.

그때에 군복을 입으시고 권총을 차신 어머님의 모습은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새겨지는것이다.

정녕 어머님의 권총은 천만군민에게 민족번영의 참다운 길은 어디에 있는가를 처음으로 새겨준 수령결사옹위의 첫 총대이며 선군혁명의 가장 귀중한 유산이다.

그것은 오늘도 단 하나의 진리만을 후대들에게 새겨주고있다.

수령결사옹위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후손만대의 번영**이 있다는 고귀한 철리를, 어머님의 간곡한 당부를.

본사기자 김 준 혁

다심한 손길은 군복, 군기에도

우리 인민군대의 군복과 군기,

바로 여기에도 해방된 조국땅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드시고 혁명적정규무력건설을 위한 사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가 뜨겁게 깃들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어머님은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받들어 나가는 길에서는 한치의 드팀도 없으시였습니다.》

혁명적정규무력건설의 나날 우리 인민군대의 첫 군복과 군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그토록 마음기울이신분은 우리의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이시였다.

주체36(1947)년 2월 어느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평양시의 한 피복공장을 찾으시였다.

이날 김정숙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에게 군복을 우리 나라 기후에도 맞고 군인들의 활동에도 편리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다시금 새겨주시면서 군복시제품도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였다.

먼저 병사들의 여름군복도안을 보아주신 그이께서는 목부분이 확트이여 시원하게 보일것 같다고 하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의도대로 군복을 더 잘 만들기 위한 방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뿐만이 아니였다. 정규적혁명무력의 면모에 어울리는 우리 식의 군복이 제정되였을 때에는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며 매일과 같이 여러 공장들에 나가시여 군복생산을 흐름식으로 하며 그 질도 높일수 있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이시였다.

진정 우리 인민군군인들이 입을 군복의 바늘뜸 하나에도, 단추 하나에도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신 김정숙동지의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마침내 항일유격대군복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조선사람들의 체질에 맞는 우리 식의 군복이 마련되게 되였다.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존엄과 위용, 자랑찬 승리의 행로가 력력한 영광의 군기에는 또 어떤 감동깊은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인가.

해방된 조국에서 정규무력건설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던 어느날 책상을 마주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한동안 종이에다 무엇인가를 그리시며 사색을 거듭하고계시였다.

항일의 투사들은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며 무슨 그림을 그리고있는가고 물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다정히 바라보시며 이제 열병식이 있게 되면 각 부대들이 군기를 앞세우고 행진하게 되는데 그 기발을 이번에 정식으로 제정하게 되므로 자신께서도 그 도안을 생각해보는중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위대한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여러 군기도안을 놓고 밤늦도록 토의하시였다.

뜻깊은 그 자리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계시였다.

오늘도 우리의 귀전에는 손수 군기에 정성담아 한뜸한뜸 수를 놓으시며 군기는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부대가 걸어온 영광스러운 전투적행로를 상징하는 기발이며 그 부대의 존재를 의미하는 생명이다, 세상에는 군대도 많고 군기도 많다, 그러나 우리 인민군대의 군기처럼 깊은 뜻이 담겨진 군기는 많지 못할것이다, 우리 군대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군대로 될것이며 영원히 백전백승하는 혁명무력으로 세계를 진감시킬것이라고 하시던 김정숙동지의 절절한 말씀이 쟁쟁히 들려오는듯싶다.

백두산혁명강군의 정규화적면모와 불패의 기상을 뚜렷이 상징하는 군복과 군기,

사람들이여, 부디 잊지 마시라. 바로 이 군복과 군기에도 백전백승만을 떨쳐갈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그려보시며, 선군의 위력속에 더욱 부강번영할 강성조선의 찬란한 래일을 그려보시며 그토록 마음기울이신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의 다심한 손길이 뜨겁게 깃들어있음을.

본사기자

평천벌이 전하는 잊지 못할 이야기

얼마전 평천혁명사적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적지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1945년 10월 평천벌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곳에 병기공장터전을 잡아주시였다고 하시면서 평천혁명사적지는 선군총대의 고향이나 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선군총대의 고향!

소중히 새겨안을수록 천근만근의 무게로 실려여있는 가슴뜨거운 사연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준다.

력사의 생눈길을 헤쳐야 했던 건국의 초행길, 꿈결에도 그리던 조국땅에 개선하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어찌하여 강선길보다 먼저 평천길을 걸으시였던가.

총대! 우리의 총대!

정녕 여기에 부강번영할 내 조국의 래일이 있음을 온넋으로 절감하신 우리 수령님이시기에 쑥대와 잡초만이 무성하던 평천벌에 위대한 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시였으리라.

지금도 귀전에 울려온다. 못 잊을 력사의 그날 우리 수령님께서 울리신 기관단총의 장쾌한 총성이.

세월의 언덕넘어 오늘도 울려퍼지는 그 메아리를 심장에 새길수록 평천벌에 새겨진 백두산녀장군의 거룩한 발자취가 력력히 어려여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어머님은 총대를 끝없이 사랑하시였기에 혁명무력을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수령님의 군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시였습니다.》

감격도 새로운 주체38(1949)년 6월 16일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리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평천벌에 있는 병기공장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7(1948)년 12월 12일 력사적인 기관단총시험사격을 하신 뜻깊은 사격장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께 병기공장로동계급이 만든 총탄시제품을 한번 쏘아보았으면 한다고 말씀올리시자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크나큰 기쁨과 흥분으로 설레이였다.

병기공장의 일군들이 총탄시제품을 재운 여러정의 기관단총을 가져와 그가운데서 한정을 골라 김정숙동지께 드리였다.

항일전의 그날을 생각하시는듯 총을 받아드시고 잠시 말씀이 없으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로 다가가시여 그 기관단총을 정중히 드리시며 우리의 로동계급이 만든 총탄시제품의 첫 사격을 수령님께서 하여주시였으면 한다고 말씀올리시였다.

순간 동행한 일군들은 김정숙동지의 한없이 숭고한 풍모에 감동을 금치 못해하며 열렬한 박수를 보내였다.

김정숙동지로부터 기관단총을 받아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빛에 반짝이는 기관단총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신 후 사격대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얼마후 흰구름이 뭉게뭉게 흘러가는 6월의 하늘가에 기관단총의 총성이 승리의 서곡마냥 울려퍼졌다.

탄알들은 목표판의 중심으로 날아가 박히였다.

동행한 일군들은 일제침략자들을 삼대베듯 쓸어눕히시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출중한 사격술에 환성을 터치며 열렬한 박수를 보내였다. 공장에서 생산한 기관단총이 아주 잘 맞는다고 치하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숙동지를 바라보시며 사격솜씨를 한번 보자고 하시였다.

사격대로 나가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숙련된 동작으로 사격자세를 취하시였다. 사격장에는 고요한 정적이 깃들었다.

백두밀림의 눈보라를 헤치시며 혁명의 사령부결사옹위의 총성을 울리시던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 우리의 기관단총으로 력사적인 총성을 울리시게 될 그 시각, 새들의 우짖음소리도, 흘러가던 흰구름도 멈춘듯 하였다. 이윽고 사격장에는 야무진 총성이 울려퍼졌다.

김정숙동지께서 쏘신 탄알들은 어김없이 목표판중심에 명중되였다.

사격장에는 또다시 환성이 터져올랐다.

사격을 마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총이 잘 맞는다고 하시며 우리의 로동계급이 만든 기관단총과 총탄시제품으로 사격까지 하니 더욱 힘이 생긴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못 잊을 그날 백두산장군들께서 울리신 력사의 총성, 그것은 주체적국방공업의 새시대를 알리는 장엄한 뢰성이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도 흘러왔다. 해방후 모든것이 어렵던 그때 빈터우에서 자기의 탄생을 선포한 우리의 국방공업은 오늘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무진막강한 국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성스러운 선군혁명위업을 굳건히 담보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불패의 당, 위대한 령도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혁명적당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로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에서 조선로동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혁명적당이라는데 대하여 뚜렷이 밝히시였다.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며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 이것은 인민대중과의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백승을 떨쳐온 우리 당의 참모습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의 위력이 있어 우리 당은 승리의 신심드높이 혁명앞에 가로놓인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전진할수 있었으며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올수 있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수령, 당, 대중은 운명공동체이다. 당과 수령의 령도를 떠나서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없는것처럼 당도 인민대중과 떨어져서는 위력한 정치조직으로 될수 없으며 정치적향도자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우리 당의 력사는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인민과의 혈연적뉴대를 강화하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력사이다.

돌이켜보면 지나온 70성상의 로정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헤쳐온 시련과 난관의 고비들은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그러나 우리 당은 언제나 나아갈 침로를 정할 때마다, 준엄한 난국에 부닥칠 때마다 인민을 먼저 찾고 인민의 소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였으며 인민의 진정에서 무궁무진한 힘을 얻군 하였다. 력사의 돌풍속에서 우리 당이 믿은것은 오직 인민뿐이였고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둘도 없는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였다.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당과 인민의 혼연일체가 있었기에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강대한 사회주의성새가 일떠설수 있었고 제국주의의 악랄한 봉쇄속에서 강국건설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기적이 창조될수 있었다. 조선로동당의 력사이자 인민을 믿고 인민과 함께 백승을 떨쳐온 성스러운 력사이다.

우리 당이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승리만을 떨쳐가는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건설될수 있은것은 혁명 그 자체를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정식화하시고 당건설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떠난 혁명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간직하여오신 확고한 혁명신조였다. 이 숭고한 인민중시의 지론으로부터 인민대중중심의 참다운 혁명철학인 주체사상이 창시되였고 독창적인 대중적당건설로선이 제시되였으며 인민사랑의 정치방식인 인덕정치, 광폭정치, 선군정치가 창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사상과 령도를 떠나 우리 당과 인민의 혼연일체의 력사에 대하여 말할수 없고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력사적인 승리와 세기적인 변혁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오늘 우리 당은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힘있게 떨치고있다.

한평생 인민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대중제일주의기치높이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새로운 경륜을 펼쳐가고계시는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뜻깊은 10월의 경축광장에서 당을 진심으로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혁명의 제일재부로 소중히 간직할것이며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발도 헤치며 미래의 휘황한 모든것을 당겨올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은 온 나라 천만군민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 바로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위대한 어머니이다.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근본사명이다. 인민들의 정치생활로부터 물질문화생활에 이르기까지, 오늘만이 아니라 앞날의 운명까지 다 맡아안고 이끌어주는 당이 진정한 인민의 향도자이다.

믿음과 사랑으로 인간을 키우는것은 우리 당의 정치신조이다. 우리 당의 믿음은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에 기초한 절대적인 믿음이며 한번 믿음을 주면 끝까지 변할줄 모르는 영원한 믿음이다. 이 위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로 우리 당은 자기의 붉은 기폭에 마치와 낫과 붓을 아로새긴 력사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나날 이 땅의 천만자식모두를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고 참된 길로 이끌어주었으며 영생하는 삶을 안겨주었다.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일수록 더 마음을 쓰며 천만의 아들딸 모두를 생사운명을 함께 할 영원한 동행자로, 동지로 믿어주고 내세워준 어머니 우리 당의 인덕정치, 광폭정치는 우리 혁명대오를 동지무대, 전우부대로 강화하고 인민과의 혼연일체를 억척으로 다져놓은 근본원천으로 되였다.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우리 당의 인민적성격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세심한 령도의 손길아래 더욱더 부각되고있다. 혁명을 오래 한 사람이나 혁명의 새 세대들이나,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생활경위를 거쳐온 사람이나 할것없이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위훈의 창조자로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어머니품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품이다. 그대는 어머니, 이 성스러운 부름속에는 세월의 눈비바람 다 막아주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안아주며 사소한 헛갈림도 없이 곧바른 한길로 나아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정이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앞으로 혁명의 길에서 그 어떤 광풍이 몰아치고 설사 지구가 깨여진대도 당과 운명의 피줄을 잇고 당을 따라 영원히 충정의 한길만을 가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주고 빛내여주는 견결한 수호자이다.

혁명의 총대우에 인민의 행복과 찬란한 미래가 있다.

오늘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침략과 간섭책동에 의하여 온갖 무질서와 혼란, 류혈사태가 련이어 빚어지고있다. 이로 말미암아 인민들의 자주권은 무참히 짓밟히고있다. 이 비극적현실은 자주적존엄을 지켜주고 옳바른 투쟁의 길로 이끌어주는 당의 령도를 받지 못하는 인민은 부모잃은 고아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은 인민의 위대한 수호자이며 선군혁명의 향도자이다. 일찌기 강력한 총대우에 인민의 영원한 존엄과 행복이 있다는 혁명의 철리를 밝힌 우리 당은 피눈물나는 식민지노예의 력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혁명령도의 전기간 불패의 군력강화에 모든것을 다 바쳐왔다. 전시에나 평화시기에나 자위적국방력의 기둥이며 핵심인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자립적인 국방공업을 천백배로 다져온 우리 당의 령도를 인민들은 절대적으로 지지하여왔다. 총대중시, 군사중시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여온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수십년동안 지속된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대결전에서 련전련승만을 떨쳐올수 있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매에 때려부실수 있는 최정예혁명강군으로 자라나고 우리 나라는 금성철벽의 요새,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우리 인민은 가장 존엄높은 자주적인민, 자주적근위병으로 위용떨치고있다. 선군의 기치높이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담보하는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다져놓은 우리 당의 력사적공적을 우리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행복의 창조자이다.

우리 인민을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행복하게 잘사는 인민으로 만들려는것은 우리 당이 창당 첫 시기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제일중대사이다. 우리 당은 행복한 나날에나 준엄한 시련의 나날에나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왔다. 인민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고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중시의 립장과 애민헌신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사회주의적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였으며 모든 사람들, 매 가정들에 당과 국가의 사랑과 은정이 끊임없이 미치게 되였다. 당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를 헤쳐오면서, 우리 당의 위대한 인민중시의 정치에 의하여 날을 따라 변모되는 벅찬 현실을 체험하면서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품이야말로 영원히 안겨살 위대한 어머니품이라는것을 온넋으로 새겨안았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이 부러워할 사회주의만복을 안겨주시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가고계신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과 헌신적복무의 자욱은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자!》라는 구호들에도 깃들어있고 현대적인 인민생활향상기지들과 문화휴식터들,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한 세계적인 건축물들과 가는 곳마다에 차넘치는 버섯재배, 온실농사, 양어열풍에도, 육아원과 애육원, 양로원들에 넘쳐나는 행복의 웃음소리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울려퍼지는 로동당만세소리, 일심단결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쳐가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에 대한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칭송과 불타는 충정의 분출이다.

인민에 대한 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에 기초한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대오의 공고성과 위력의 원천이 있으며 모든 승리의 근본담보가 있다.

우리 인민은 당의 혁명사상과 백두의 칼바람을 전진의 원동력으로 하고 존엄높은 붉은 당기를 돛으로 삼아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일것이다.

오 수 경

겨울철 석탄생산에 박차를 가한다

30여개 단위가 년간계획 넘쳐 수행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에서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에서 최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격동속에 접한 후 50일동안에 련합기업소의 탄광들에서 30여개 채탄중대, 굴진소대들이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사상공세작전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련합기업소에서는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기세로 석탄증산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올해 갱내석탄운반삭도화, 갱내벨트콘베아공사, 버럭운반용륜환선삭도화를 비롯하여 석탄증산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을 받아안은 련합기업소의 모든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보다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총돌격전에 떨쳐나섰다.

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탄부들속에 들어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의 정신을 깊이 심어주면서 그들이 석탄증산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해나가도록 사상공세를 힘있게 들이대고있다.

당, 행정, 기술일군들모두가 갱막장에 전투좌지를 정하고 인민군대 지휘관들처럼 막장마다에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분화구에서 터져나오는 용암마냥 탄부들의 석탄증산열의가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위대한 승리로 빛내이자!》는 구호들이 탄광과 갱, 막장마다에 게시되여 탄부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나라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2.8직동청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공업의 식량인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현시기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하시며 탄광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 석탄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하신 그날의 간곡한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석탄증산투쟁을 힘있게 다그쳤다.

특히 이들은 갱과 중대, 소대호상간 사회주의증산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질풍같이 내달렸다. 그리하여 1갱 채탄1중대, 청년갱 채탄2중대, 6갱 채탄1, 2중대, 9갱 굴진소대, 8갱 굴진3소대를 비롯하여 13개 갱의 채탄중대, 굴진소대들에서 년간 석탄생산과 굴진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천성청년탄광 일군들은 탄부들과 함께 탄을 캐고 탄차도 밀면서 그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며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의 당일군들과 행정일군들은 제일 어렵고 힘든 채탄중대와 굴진소대들을 자진하여 맡고 막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는 동시에 합리적인 채탄방법, 굴진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이신작칙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의 정치사업과 로력적지원에 의하여 1갱 채탄1, 3, 6중대, 8갱 채탄3중대, 11갱 1중대, 7갱 굴진4소대들에서 년간계획을 수행하였다. 그뒤를 많은 채탄, 굴진소대들이 따라서고있다.

령대탄광의 모든 갱들이 앞서거니뒤서거니 하며 석탄증산투쟁을 벌리며 충천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탄광당조직에서는 당창건일흔돐을 맞으며 년간 석탄생산계획을 남먼저 끝낸 1갱 채탄1중대, 2갱 채탄3중대, 3갱 채탄3중대를 비롯한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널리 소개선전하면서 탄부들을 대중적혁신운동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많은 갱, 중대, 소대들에서 년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파기자 리혁철

—특장청년탄광에서— 본사기자 찍음

과학화수준이자 축산물생산성과

구성닭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구성닭공장에서 최근 년간 해마다 20%이상의 먹이를 절약하면서 축산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 공장 일군들의 일본새에서 주목되는것은 모든 사업을 과학적인 먹이생산방법을 받아들이는데 집중시킨것이다. 공장에서 여러가지 균과 10여가지 첨가제를 생산하여 먹이소비기준을 낮추면서 축산물생산을 늘인 사실이 그 실례이다.

몇해전 어느날 공장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과업관철을 위한 문제를 놓고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여기에서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초점을 모은것은 과학자들과 힘을 합쳐 집짐승먹이소비기준을 낮추자는 초급당비서의 주장이였다.

그러나 일부 기술자들은 의견을 달리하였다. 그들은 많은 닭과 오리, 종자돼지와 염소, 소와 10여만마리의 물고기먹이를 우리 힘으로 보장할수 없다고 하면서 우에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때 지배인이 먹이소비기준을 낮추는 문제는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령의 유훈관철전이다. 그러므로 해당 부문 과학자들과 지혜를 합쳐 먹이소비기준을 낮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여 협의회에서는 이 문제가 결정되였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을 비롯한 해당 부문의 과학자들이 공장으로 찾아오기 시작하였다. 과학자들속에 들어간 공장책임일군들은 제기되는 문제들을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심이 높아지고 과학자들의 창조적열의가 고조되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였다.

먼저 닭, 오리배설물에 균처리를 하여 집짐승먹이로 리용한 사실을 보자.

과학연구사업이 심화되는 속에 한 과학자가 최근 새로 연구완성된 어느 한 균을 닭, 오리배설물에 처리하면 먹이소비기준을 낮출수 있다고 하면서 그 원리를 설명하였다. 듣고보니 착상이 기발하였다. 과학자들과 공장기술자들은 먼저 균처리를 한 닭, 오리배설물을 먹이에 20%이상 섞어 닭, 오리먹이로 리용하였다. 성공이였다. 그들은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였다. 그 과정에 비육닭, 오리배설물에 균처리를 하여 돼지, 염소, 양, 물고기먹이로 리용하는 방법을 받아들이였다. 이렇게 하니 돼지, 염소, 양, 물고기를 균처리한 오리, 닭배설물로 기를수 있었다.

공장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집짐승배합먹이의 질을 더욱 높이는데 필요되는 여러가지 첨가제를 연구개발하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알낳이닭, 오리먹이첨가제, 종자돼지먹이첨가제, 비육돼지먹이첨가제 등 10여가지 첨가제를 연구개발하여 축산물생산을 훨씬 늘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특히 해마다 수십t의 먹이를 절약하면서 천수백마리의 새끼돼지까지 생산하여 공장관리운영에 효과있게 리용하였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알깨우기작업반의 설비들은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서지 못하였다. 이 문제를 놓고 일군들은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들을 비롯한 해당 부문 과학자들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면서 기술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갔다. 제기되는 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지만 연구사, 과학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치였다. 한편 공장일군들은 필요되는 자재보장을 앞세웠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여러대의 현대적인 알깨우는기계를 만들어내였다. 그들은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모든 알깨우는기계들을 콤퓨터로 조종할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알깨우기실수률을 최대로 높이였다.

이 공장의 현실은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심을 가지고 과학화, 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해나갈 때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혁신이 일어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창길

벨트콘베아가 은을 낸다

봉천탄광에서

봉천탄광에서 새로 건설한 중거리벨트콘베아가 큰 은을 내고있다. 가동을 시작한지 보름동안 탄광에서는 중거리벨트콘베아를 리용하여 매일 석탄생산을 1.2배로 끌어올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완공된 중거리벨트콘베아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완공된 창조물이다. 중거리벨트콘베아가 완공됨으로써 석탄생산능력을 지난 시기보다 1.5배로 높여 석탄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3월 탄광의 중거리벨트콘베아공사진행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수차에 걸쳐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책임일군들은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방대한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냄으로써 석탄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게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련합기업소와 탄광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공사를 앞당겨 끝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상반년에 453m의 굴진과 1 100m의 복구굴진, 150m의 갱도영구화와 930m의 레루설치, 347㎥의 원동소와 벨트다리, 갱내전복기기초치기를 진행하였으며 7개소의 원동소운전실과 200㎡의 저탄장을 건설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들은 중요단위에 석탄을 생산보장하기 위한 긴장한 전투를 벌리는 속에서도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떨쳐나 사갱벨트를 설치하고 벨트머리부와 전동부를 비롯한 수많은 부분품들을 제작설치하였다. 이와 함께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 2800m의 지상동력전주공사와 1256m의 갱내케블선공사, 변전소의 정류변성기설치공사를 진행하고 4개의 벨트방수문제작설치를 성과적으로 끝내였다.

봉천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석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일군들은 전복기와 벨트기동기, 조명변압기를 비롯한 수많은 설비들이 정상가동되도록 설비관리와 기대관리를 짜고들고 교대당 석탄생산을 늘이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탄부들은 교대호상간 사회주의증산경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있다.

련속천공, 련속발파소리가 높이 울리는 속에 캐낸 석탄이 벨트콘베아를 타고 쭉쭉 빠져나가고있다. 벨트갱의 탄부들은 생산지령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설비들의 만가동보장에 힘을 넣어 일 석탄생산량을 계속 늘여나가고있다.

중거리벨트콘베아의 운영으로 탄광의 석탄생산실적이 부쩍 뛰여오르는데 맞게 탄광의 일군들은 다른 갱들에 설비와 탄차를 더 보강해주어 모든 갱들에서도 종전보다 더 많은 석탄을 캐내도록 하고있다.

특파기자

쇠동발을 적극 리용

조양탄광에서

조양탄광에서 기본굴진과 준비굴진, 석탄생산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쇠동발을 적극 받아들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설비, 자재, 부속품을 보장하면서 쇠동발까지 자체로 마련하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탄광의 일군들은 옳바른 경영전략을 세우고 동발나무소비기준을 줄이고 갱막장을 영구화하면서도 탄부들이 안전하게 석탄을 생산할수 있게 하기 위해 대담하게 결심하고 달라붙었다.

탄광에서는 월봉갱, 3갱에서 본보기를 창조하기로 하였다. 4.15기술혁신돌격대와 공무직장의 기술자, 로동자들은 기본갱도와 운반갱도, 연층갱도의 실정에 맞는 쇠동발을 각각 제작하여 석탄생산에 리용할수 있게 하였다. 일군들은 종전에 쇠동발을 리용할 때의 경험을 살려 월봉갱과 3갱의 탄부들과 함께 일하면서 하나하나 익숙해나갔다. 동발나무보다 쇠동발이 무거운것으로 하여 처음 리용할 때에는 다루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점차 쇠동발다루는 묘리가 생기면서부터 탄부들모두가 좋아하였다.

쇠동발을 리용하니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갱막장의 영구화가 실현되여 탄부들이 안전한 조건에서 석탄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되였다. 그리고 채탄막장에서 석탄생산을 한 다음 쇠동발을 100% 회수하여 다시 리용할수 있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한번 생산한 쇠동발은 10년이상 쓸수 있기때문에 동발나무를 쓸 때보다 원단위소비기준이 훨씬 낮아졌다.

일군들은 본보기를 창조한 다음 모든 채탄중대들에 받아들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쇠동발생산을 늘여나갔다. 그리하여 9개의 갱들에서 쇠동발을 리용하여 석탄생산을 할수 있게 되였다.

탄광에서는 쇠동발을 받아들인데 맞게 쇠동발교정기를 제작설치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내밀어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있다.

특파기자

광산이 자랑하는 혁신자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고있는 혁신자들속에서는 천마광산이 자랑하는 소대장들인 박기원, 김문길, 김경호동무들의 모습도 찾아볼수 있다.

언제나 이신작칙의 실천적모범으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천마광산 조악갱 생산7소대장 박기원동무는 막장에 전투속보판을 게시해놓고 혁신적인 성과들을 제때에 소개선전하면서 대중의 정신력을 힘있게 폭발시키고있다. 그는 언제나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으로 생산돌격전에로 소대원들을 이끌어 10월말까지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다음해생산준비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2갱 생산2소대장 김문길동무는 병사시절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대오의 기수가 되여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며 수십㎥의 동발나무를 자체로 해결하고 수십m구간의 침목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등 광물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면서 맡겨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3갱 생산1소대장 김경호동무도 정대와 정알을 비롯한 부속품들과 작업공구들을 소대자체로 해결하고 사장되여있던 수많은 레루를 회수하여 생산에 리용하면서 그날계획을 120%이상 넘쳐 수행하는 집단적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오늘도 박기원, 김문길, 김경호동무를 비롯한 초급지휘성원들은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총진군에서 대오의 기수가 되여 폭풍쳐 내달리고있다.

로농통신원 강성희

—유리공장에서— 본사기자 림학락 찍음

황철로동계급의 호소에 높은 생산성과로 화답하도록 고무추동한다. —대안친선

황금해력사창조의 불길드높이 만선의 배고동소리 더 높이 울려가자

물고기대풍으로 인민사랑의 높은 뜻 받들어가리

두포곱등어먹이보장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물고기대풍을 마련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어로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두포곱등어먹이보장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물고기잡이에서 자랑찬 로력적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우리 당 수산정책의 정당성을 철석의 신념으로 간직한 이들은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달고 결사적인 투쟁을 벌림으로써 년간 물고기잡이계획과 높이 세운 집중어로전투목표를 기한전에 훨씬 넘쳐 수행하는 눈부신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더 높은 물고기잡이실적으로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정히 받들어갈 열의에 넘쳐있는 이들은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겨울철의 사나운 날바다와 싸우며 혁신의 한길로 줄달음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여야 합니다.》

시작부터가 신념의 대결, 정신력의 결사전이였다. 일부 패배주의자들이 그 무슨 전례와 기후변화를 운운하며 바다에 물고기가 없다고 이런저런 조건타발을 늘어놓을 때 이들은 잡도리부터 주대있게 하였다.

세소어업을 발전시키며 연유 1t으로 10t의 물고기를 잡을데 대한 당의 수산정책을 필승의 보검으로 추켜들자. 과학적인 바다판측자료와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추호도 흔들림없이 우리의 실정에 맞는 어로방법들을 받아들이자!

보람찬 군사복무의 나날을 통해 결사관철의 정신을 체질화한 사업소의 일군들과 이 고장 바다가에서 태여나 잔뼈를 굵혀온 어로공들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떨쳐나섰다.

박봉길, 서원철, 송영일동무를 비롯한 사업소의 일군들은 큰 배로도 잡고 작은 배로도 잡으며 깊은 바다에서도 잡고 얕은 바다에서도 잡으며 물고기잡이와 양식을 동시에 내밀기 위한 립체전을 통이 크게 펼치였다. 특히 연유소비를 최대로 줄이며 집중어로전투를 드세게 벌릴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과학적인 어군탐색과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는 어황통보체계확립에 큰 힘을 넣었다.

승리는 전투전에 마련되는 법이다. 지배인 박봉길, 책임기사 송영일동무의 확고한 주견과 예견성있는 작전은 그대로 높은 물고기잡이실적으로 이어졌다. 어로1, 2, 3작업반의 어로공들은 여러가지 합리적인 물고기잡이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맡겨진 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80hp의 어선들과 40여척의 작은 배들도 집중어로전투에 남먼저 진입하여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힘차게 울리였다.

한마리한마리의 물고기가 결코 쉽게만 마련된것이 아니였다. 쏟아져내리는 찬비와 맵짠 바다바람, 무섭게 솟구치는 세찬 풍랑,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줄기찬 돌격전을 벌리며 파도우에서의 연 수십일간…

투쟁과 전진을 가로막은것은 변덕스러운 날씨나 사나운 풍랑뿐이 아니였다. 이들에게 있어서 물고기잡이전투는 큰 배와 대형어구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책상주의자들의 잡소리를 쳐갈기는 사상의 대결이였으며 연유가 풍족해야 실적이 난다는 패배주의자들에게 된타격을 안기는 결사관철의 의지, 정신력의 결전이였다.

이곳 어로공들이 지금도 긍지높이 추억하는 마가을어로전투의 그 10여일간!

작업반장들인 김금섭, 로광호동무들과 어로3, 1, 2작업반의 어로공들은 큰 배는 물론 소형발동선으로도 모자라 근 20척의 전마선들까지 몰고나가 어로전투를 치렬하게 벌리였다. 겹쌓이는 피로로 입술이 부르트고 손발이 갈라터지는것도 아랑곳없이 억척스레 그물을 당기였다.

발동선으로는 어로작업에 필요한 불빛을 보장해야 한다. 물고기운반은 전마선으로!

물고기잡이를 순간도 중단할수 없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모진 비바람과 한밤중의 세찬 파도를 노를 저으며 한치한치 헤쳐나갈 때 모두의 심장속에서 등대마냥 빛을 뿌린것은 무엇이였던가.

뜻깊은 올해의 5월, 동해의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를 몸소 찾으시여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차넘치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손으로 황금해력사의 대문을 기어이 열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에 실천과 실적으로 보답하려는 순결한 충정이였다.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마련된 통라곱등어관을 비롯하여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들과 집집의 창가마다에서 꽃펴나는 인민의 웃음소리를 더 밝게, 더 창창하게 울려가게 하려는 애국의 마음이였다.

발동선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제때에 질적으로 하여 물고기잡이에 적극 이바지한 공무작업반의 윤영철, 김성기, 권오윤동무들, 가공은 넘려말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달라며 혁신의 앞장에 선 가공작업반의 김정식, 김성기, 강명실, 신영희, 리광혁동무들과 수많은 어로공가족들, 년간 수산물계획수행에 적극 이바지한 양식작업반과 재배작업반의 종업원들과 리상기, 최기남, 김석승, 함형규동무들, 중대정치지도원으로 복무하던 그때처럼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며 어로전투장마다에서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포성을 높이 울린 초급당비서 서원철동무…

정녕 오늘의 어로전투이자 곧 당정책옹위전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지니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뚫고나간 어로공들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헌신적인 로력투쟁에 의하여 사업소는 년간 물고기잡이계획과 높이 세운 집중어로전투목표를 훨씬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게 되였다.

수백hp급의 어선이 단 한척도 없는 자그마한 기업소가 불과 수십척의 전마선과 소형발동선들을 리용하여 연유 1t당 수십t의 물고기를 잡아냄으로써 도적인 집중어로과제의 많은 몫을 해제끼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오늘도 두포곱등어먹이보장수산사업소의 미더운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물고기대풍으로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더 높이 받들어갈 일념안고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대고조진군의 하루하루를 자랑찬 위훈으로 빛나게 수놓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면밀한 작전, 신속한 기동전

최근 청진앞바다에서 벌어지고있는 회유성물고기잡이실적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배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모든 성과에는 반드시 비결이 있듯이 회유성물고기잡이실적이 그토록 높아진데도 요인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사실 얼마전까지만해도 동해안의 많은 배들이 고성앞바다에서 도루메기잡이를 하고있었다. 만선기를 날리며 련이어 들이닥치는 고기배들로 하여 포구에는 말그대로 《이채어경》이 한껏 펼쳐지고있었다. 모두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도루메기잡이실적을 더 높이겠는가 하는데로 쏠리고있었다.

하지만 현장지휘부일군들은 그보다 훨씬 앞을 내다보고있었다. 다음전투 즉 해마다 이맘때면 청진앞바다에 들이닥치군 하는 회유성물고기떼를 모조리 잡을 새 전투작전준비를 하고있었던것이다.

하다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모두의 정신이 다 도루메기잡이에 쏠려있는 그 상황속에서도 다음전투를 예견성있게 준비할수 있게 하였는가.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창조한 산모범이였다. 망망한 바다를 전장으로 정하고 있을수 있는 모든 정황을 예견성있게 타산한데 기초하여 작전을 치밀하게 짜고듦으로써 물고기떼가 나타나자마자 모조리 잡아치우는 그들의 화선식일본새를 따라배우기 위해 애써 노력한 결과였다.

모든 고기배들에서 도루메기잡이실적을 최대한 올리면서도 앞으로 시작될 회유성물고기잡이준비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갔다. 그물을 비롯한 어구, 자재들과 충분한 연유도 마련되였으며 인민군대에서 창조한 대담한 어로방법들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들도 치밀하게 진행되였다.

이렇게 모든 준비사업을 예견성있게 갖추어놓은 결과 이들은 청진앞바다에 회유성물고기떼가 나타났다는 통보를 받자마자 신속히 기동하여 전투에 진입할수 있었으며 첫날부터 높은 실적을 기록할수 있었다.

사실 지난 시기 이들은 물고기떼를 뒤쫓아다니는 추격전에 매달리다나니 그 준비사업을 하는데 며칠, 또 기동하는데 며칠 걸리는 식으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놓치군 하였다. 그러나 사전에 모의훈련까지 하면서 준비사업을 착실히 해놓고 물고기떼를 맞받아나가 공격전, 섬멸전을 벌리는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의 일본새를 따라배우니 고기잡이실적은 지난날에 비할수 없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전투승리는 사전에 마련된다고 이들처럼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대담한 공격전을 벌려나갈 때 이 땅 그 어디에나 풍겨가는 사회주의바다향기는 더욱 짙어질것이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아오신 《이채어경》은 내 나라의 포구마다에 한껏 펼쳐질것이다.

글 본사기자 주령봉
사진 본사기자 신충혁

‖ 한몸이 그대로 추진기, 그물이 되여 ‖

격랑속에서 20분간

지난 11월, 어로작업을 진행하던 원산수산사업소 고기배 ㅅ-저-92303호가 뜻밖의 정황에 맞다들렸다.

《확대관지지대가 꺾어진다!》

선미갑판에서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리였다.

확대관지지대가 꺾어지면 그물안에 든 10여t의 물고기를 몽땅 놓쳐버리게 되는것은 물론 귀한 어구들이 다 못쓰게 된다.

위급한 그 순간, 번개같이 확대관지지대쪽으로 몸을 날리는 사람이 있었다.

선단장 유석호동무였다.

휘여드는 지지대를 쇠바줄로 묶고 안깐힘을 다해 그러안으며 그는 웨쳤다.

《양망작업을 계속하라!》

만약 그때 지지대가 부러지면 생명이 위험하다는것을 누구나 잘 알고있었다.

5분, 10분, 15분…

권양기의 바줄이 당겨질 때마다 지지대가 받는 힘은 상상을 초월하였다.

드디여 20분만에 펄펄 뛰는 물고기들이 가득 담겨진 그물이 물면우에 서서히 떠오르고 갑판우에 물고기가 폭포치듯 쏟아져내릴 때 이들의 가슴은 기쁨으로 벅차올랐다.

사품치는 격랑속에서 결사의 각오를 안고 양망작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한 이들의 신념은 더욱 억세여졌다.

한몸이 그대로 추진기가 되고 그물이 되여서라도 당에서 제시한 전투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리라. 이런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이들은 오늘도 동해의 푸른 바다우에 만선기를 날리고있다.

조건을 기다리지 말자

중심어장에서 배들이 만선기 펄펄 휘날리며 포구로 돌아올 때 부두에서는 고기배들의 수리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졌다.

어느날 고기배 ㅅ-저-91722호의 일부 부분에 변형이 생겨 배올림대우에 올려놓아야 할 긴급정황이 조성되였다. 한주일은 실히 걸려야 했다.

그러나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떨쳐나선 어로공들의 불같은 열의는 한주일이라는 시간을 용납하지 않았다.

조건을 기다리지 말고 맞받아 뚫고나가자. 배를 배올림대차에 설치하고 끌어올리는것과 동시에 레루우에 쌓인 감탕을 처리하면서 시간을 단축하자. 이렇게 결의하고나선 잠수공들이 사품치는 바다물속으로 들어가 립체전을 벌리였다. 손더듬으로 한치한치 길을 내면서 감탕을 쳐내기도 힘이 들었지만 파도에 배의 동체가 움씰거릴 때면 위험을 동반하는 아슬아슬한 작업이였다. 그러나 이들은 견인불발의 의지로 긴장한 전투를 벌려 배를 수리장까지 성과적으로 끌어올렸다. 종전같으면 한주일이 실히 걸린다던 수리를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고 배를 바다로 떠나보내는 이들의 마음은 만선기날리는 들끓는 어장에 가있었다.

본사기자

‖ 동승기 ‖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들, 전속 앞으로!

◎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 고기배 뜨-2-105호를 타고 ◎

집채같은 파도가 밀려온다.

큰 배들도 단숨에 밀어버릴만큼 파도가 기승을 부리는 날바다 한복판에 틀지게 자리잡은 가공모선에서는 물고기를 부리우는 작업이 중단없이 진행된다.

우리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떨쳐나선 어로공들의 투쟁모습을 전하기 위해 가공모선에 계류하고있는 2중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모체) 고기배 뜨-2-105호로 동승의 길을 이어간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에서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며 물고기대풍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식탁우에 바다향기가 풍기게 하여야 합니다.》

하선작업을 마친 고기배에서 선장의 담찬 구령이 울린다.

《선수, 선미삭 올렷! 기관 시동! 전속 앞으롯!》

갑판원들인 김영철, 윤광철동무들이 잽싼 동작으로 바줄을 거두기 바쁘게 고기배는 물갈기를 일으키며 어장을 향해 출발한다.

망망대해가 눈앞에 펼쳐지고 광경이 펼쳐진다.

긴장감을 누르지 못해하는 우리에게 당세포비서 김용철동무가 웃으며 말한다.

《사실 이런 날씨에는 물고기잡이가 헐치 않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련합기업소 어로공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업소가 사회수산부문에서 기치를 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배선원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쯤한 파도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우리 어로공들입니다.》

얼마후 지휘선으로부터 물고기떼가 나타났다는 긴급무전이 날아온다.

조타실에 놓여있는 현대적인 어군탐색설비의 화면에 얼굴을 돌리며 선장이 무릎을 친다. 그의 자신만만한 표정을 보며 틀림없는 만선이라고 어로공들이 어깨를 들썩인다.

《물고기잡이에서는 당정책의 요구대로 과학적인 어로방법이 기본입니다. 어황이 수시로 바뀌는 조건에서 경험주의적인 어로방법으로는 짧은 고기잡이철에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수 없습니다.》

물고기잡이명수로 소문난 선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며 배를 몰아간다.

중심어장이 눈앞에 펼쳐진다.

어장의 한복판으로 용용히 들어서는 고기배에서 어로공들이 번개같이 자기 위치를 차지하며 투망준비를 서두른다.

《투망!》

선장의 힘찬 구령과 함께 커다란 그물이 순식간에 선미에서 흘러내린다. 넓다란 확대판이 사품치는 물속에 가라앉자 쇠바줄이 팽팽히 켕기기 시작한다.

수십m깊이의 바다밑에 그물을 떨군 고기배가 용을 쓰며 전진한다.

기관장 김홍길동무가 선장의 지휘에 따라 물고기잡이에 알맞는 속도를 보장하느라 여념이 없다. 어로공들이 선장의 지휘에 따라 서로의 마음과 힘을 합쳐 그물을 조절한다.

배의 전진속도를 주시하던 박승철동무가 정말로 만선은 문제없다는듯 엄지손가락을 내보인다.

어느덧 양망작업이 시작된다.

권양기에 바줄이 서서히 감기고 배의 속도는 점차 늦추어진다. 이어 펄펄 뛰는 물고기들이 그물에 싸여 물면우로 떠오른다. 10여t은 실히 됨직하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갈매기들이 어장의 하늘가를 하얗게 물들이며 떼를 지어 모여온다.

물고기떼가 기중기팔에 매달려 떠오르더니 폭포처 쏟아져내린다. 순간 갑판우에는 물고기바다가 펼쳐진다.

물고기가 가득 쌓인 선창에 둘러선 어로공들의 구리빛얼굴마다에는 만선의 기쁨이 한껏 어린다.

해마다 배에서는 물고기잡이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지만 올해처럼 많은 물고기를 잡아본적이 최근년간에 없었다고 어로공들이 긍지에 넘쳐 말한다.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당의 사상관철전에 떨쳐나 수십일간 물고기잡이전투를 벌려 흐뭇한 성과를 안아온 어로공들,

포구에 넘쳐나는 사회주의바다향기는 한몸이 그대로 추진기가 되고 그물이 되여서라도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려는 이런 바다의 정복자들의 용감한 투쟁에 의하여 마련되는것이다.

온 나라 집집마다에 넘쳐나게 될 사회주의바다향기를 담아싣고 고기배 뜨-2-105호는 만선기를 펄펄 날리며 귀항길에 오른다.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들이여, 정다운 포구는 그대들을 얼싸안아주려니 귀항의 길을 다그치라. 전속 앞으로!

전혁철

‖ 사회주의바다향기 풍겨오는 흐뭇한 풍경 ‖

뜻깊은 12월 24일에 즈음한

직총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 경축공연 진행

뜻깊은 12월 24일에 즈음한 직총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 경축공연이 22일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주영길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 직맹일군들, 시안의 직맹원, 로동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경축공연무대에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빛내이시며 부강조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혼성합창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대화시 《최고사령관복》 등의 종목들에서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인민군대를 사상과 신념의 강자,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불패의 군력으로 태양조선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출위인상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반제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수호전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신 절세의 애국자, 희세의 백두령장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차넘치는 공연무대에 혼성2중창 《선군승리 용해야》, 녀성6중창 《자랑하세 천하제일명장》, 녀성독창 《장군님 생각》 등이 펼쳐졌다.

관람자들은 언제나 혁명의 최전방에 계시며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철주야로 걸어가신 강행군길이 어려와 눈굽을 적시였다.

녀성3중창 《고향집추억》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위대한 태양의 해발이 되시여 수령결사옹위로 한생을 빛내이시고 김일성민족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게 하였다.

남성2중창과 방창 《우리 원수님》, 녀성독창과 방창 《바다 만풍가》, 남성독창과 방창 《조선의 모습》을 비롯한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온 세상에 끝없이 빛내이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을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따라 부강조국건설에 애국헌신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촌극 《마지막사람》, 녀성2중창 《영원한 메아리》 등의 종목들에서 잘 보여주었다.

합창시와 합창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가리라 백두산으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로 끝난 경축공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비약의 한길로 내달리는 전체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혁명적열정과 투지를 잘 보여주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이

모잠비끄공화국 대통령을 만났다

모잠비끄를 방문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인 강하국보건상은 18일 대통령궁전에서 필리뻬 뉴씨 모잠비끄공화국 대통령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석상에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필리뻬 뉴씨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강하국보건상이 정중히 전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 자신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축원의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

대통령은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께서 모잠비끄와의 관계발전을 중시하시여 정부대표단을 파견해주신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말하였다.

조선의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각하께서 모잠비끄의 선대령도자들과 함께 마련하여주신 두 나라사이의 관계는 오랜 력사를 가진 특수한 관계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모잠비끄의 독립과 새 사회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마뿌또시내 중심부에 김일성거리가 자리잡고있는 사실만 놓고보아도 모잠비끄정부와 인민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얼마나 흠모하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고 말하였다.

두 나라 선대수령들께서 가꾸어오신 쌍무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정부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열렬히 축하한다고 강조하였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녀성들

만경대혁명학원 참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8돐에 즈음하여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녀성들이 22일 만경대혁명학원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먼저 학원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이어 그들은 백두산3대장군의 손길아래 학원이 걸어온 자랑찬 력사와 원아들이 우리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나갈 핵심골간으로 자라나고있는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혁명사적교양실과 강의실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갈 의지를 안고 부모들처럼 당과 영원히 운명을 함께 하는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준비해나가고있는 혁명학원원아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감탄을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감상록에 글을 남기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은 이런 당원들을 높이 평가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평안남도의 차량감독소 일군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보배입니다.》

하나의 미거가 시대의 모습으로 가슴에 파고들며 심금을 울리고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한몸을 바쳐 동지의 생명을 구원한 그런 영웅적희생성도 아니다. 살을 에이는 혹한과 강풍속에서 세상이 쳐다보는 만년언제를 쌓아올린 위훈도 아니다.

한 당세포의 당원들과 농촌마을의 유치원…

다만 그와 관련한 몇가지 사실이다.

허나 어찌하여 그처럼 시대앞에 높이 부각되고있는것인가. 무엇으로 하여 한 농촌마을의 유치원에 이어진 크지 않은 자욱이 우리 당의 높은 평가속에 빛을 뿌리는것인가.

어린이들은 나라의 보배이며 조국의 미래이다. 우리가 만난을 이겨내며 혁명을 하는것은 그들을 위해서이며 오늘 우리가 후대들에게 사랑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래일의 조국은 더 부강해지고 더 아름다와질것이다.

우리 당의 후대관을 심장에 간직하고 나라의 꽃봉오리인 어린이들을 아끼고 정성다해 돌보며 거기에서 최대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바로 여기에 조선로동당원들의 고매한 품성이 있다.

소장 김승운동무를 비롯한 평안남도의 차량감독소 당원들은 그것을 보여주었다.

잊을수 없는 57년전의 이야기와 29명 당원들

우리 제도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후대들을 열렬히 사랑하며 후대들을 위한 일이라면 발벗고나선다. 우리 시대 인간들의 후대들에 대한 관심과 헌신은 범박한 애정이나 인간성이 아니라 혁명가가 지닌 사랑가운데서도 가장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인 후대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 거기에는 우리 당의 후대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려는 자각과 의지가 깔려있다. 소장 김승운동무를 비롯한 평안남도의 차량감독소 일군들은 그런 정신세계의 소유자들이다. 지난해 어느날 차량감독소에서 진행된 당원협의회는 그들이 지닌 뜨거운 후대사랑의 분출이기도 하였다.

그날 협의회에서 김승운동무는 하나의 가슴뜨거운 사실을 전하였다.

《1958년 여름 어느날이였소.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협동조합에 들리시였소. 조합에서는 김매기가 한창이였는데 그때 포전앞을 지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길섶에서 한 어린애를 보게 되시였소.》

김승운동무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

그 어린애는 김매기하러 밭에 나온 한 녀인의 자식이였다. 길섶에 눕혀놓은 어린애는 쌔근쌔근 잠을 자고있었다. 그것을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애를 안아다 나무그늘밑에 눕히시고 손수건으로 땀에 젖은 어린애의 얼굴을 손수 닦아주시였다. 그러신 후 주변을 둘러보시였다. 마침 가까운 곳에 나어린 소녀가 갓난애를 업고 서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소녀에게 이애가 네 동생인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자기 동생을 나무그늘밑에 눕혀주시고 땀도 닦아주신 자애로운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던 철부지소녀는 그저 옳다고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네 이름이 뭐냐고 물으시였다. 소녀의 대답을 들으신 장군님께서는 이름이 참 좋다고 하시고 마을에 탁아소와 유치원이 없는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소녀는 없다고 또 머리를 끄덕이였다.

안색을 흐리신 그이께서는 어린애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면서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에게 멋있는 유치원을 지어주신다고, 그러면 너희들은 유치원에서 우리 글과 셈세기도 배우고 노래와 춤도 배우며 마음껏 뛰놀게 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어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훌륭히 키우는것은 수령님의 뜻이라고, 어린이들을 훌륭한 일군으로 키우자면 탁아소와 유치원이 있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이르시였다. 그러시면서 포전에 나올 때 농촌녀성들이 어린애들을 발머리에 눕혀놓고 어떻게 마음놓고 일할수 있겠는가고 하시였다. …

《그후 조합에는 형편이 어렵지만 탁아소, 유치원부터 짓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속에 탁아소와 유치원이 건설되였소. 그때부터 부모들을 따라 밭에 나오는 아이들이 없어지고 마을엔 탁아소, 유치원에서 울려나오는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차넘치게 되였소. …》

침묵이 흘렀다. 당원들모두의 눈엔 뜨거운것이 고여있었다. 그들을 둘러보며 당세포비서인 지도원 김정호동무가 말하였다.

《그날의 조합이 바로 우리 평성시의 봉학남새전문협동농장입니다. 농장의 탁아소, 유치원은 그런 사연속에 태여났습니다.》

김승운, 김정호동무들은 이어 절절하게 말하였다.

그런데 지금 농장의 유치원은 건설된지 오래되여 건물이 낡은데다가 단층이다. 아이들의 놀이장도 붙비하다. 이걸 알고서야 어떻게 가만있을수 있겠는가. 우리가 농장의 유치원을 맡아 잘 꾸려주자. 그러되 낡은 건물을 통채로 들어내고 유치원을 현대적으로 새로 건설하자. 아이들을 위해 해줄수 있는 모든것을 다해주자!…

이것은 세포당원들의 하나같은 심정이기도 하였다.

《그럽시다. 유치원을 새로 건설하여 아이들을 더 잘 키우게 합시다. 건설에 필요한 모든 자재도 우리 힘으로 해결합시다!》

소식을 듣고 가족들도 떨쳐나섰다. 김승운동무의 안해 김명숙동무는 아들결혼식에 쓰려고 장만했던것을 모두 유치원건설에 돌리였고 지도원 김정호, 최명호, 차량감독원 김호철, 리영철, 장충조동무 등 세포의 모든 당원들의 가정에서도 저축했던 모든것을 아낌없이 내놓았다. 김명숙동무를 비롯한 가족들은 많은 지원물자도 준비하였다.

29명 당원들의 뒤에는 이처럼 절세위인들의 후대사랑을 길이 전하고 당의 뜻대로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데 심신을 합친 수많은 가족들도 있었다.

57년전의 잊지 못할 이야기가 깃들어있는 농장의 이전 유치원자리에 지금은 현대적인 새 유치원이 서있다. 연건평은 640여㎡, 이전의 두배이상이고 2층건물이다. 원아들의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비품과 설비, 기재들은 물론 물놀이장, 종합놀이장, 야외놀이장, 동물사까지 갖춘 유치원은 농장에서 제일 환하고 멋들어진 건물이기도 하다.

그앞에 무지개모양으로 걸린 정문의 글발—우리는 행복해요!

세상에 단 하나, 이 땅에서만 울리고있는 아이들의 목소리이다. 우리 수령님 품에서 처음 터치고 우리 장군님 품에서 세월을 이어 울린 행복의 그 목소리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서 높이 터치며 유치원들마다에서 아이들이 뛰논다.

봉학남새전문협동농장의 10일유치원에도 웃음꽃이 만발한다. 갖가지 놀이감이 있는 종합놀이장에도, 그네를 타고 미끄럼대를 타며 아이들이 떠들썩하는 야외놀이장에도 웃음꽃, 웃음꽃이다.

훌륭하게 꾸린 교양실들과 포근한 잠방, 집기가 반짝이는 취사장이며 아늑한 식사실, 정갈하고 산뜻한 세면장…

백수십점의 교구비품에서도, 전문안팎의 꽃장식과 그림, 조각들에서도 아이들에게 기울인 사랑을 후덥게 느끼게 되건만 그것을 범상한 일로 묻어두며 자랑을 삼가하는 차량감독소의 당원들은 볼수록 돋보이였다.

아이들아, 너희들의 행복은 우리의 기쁨!

다행히도 유치원원장이 내놓은 한권의 책이 취재를 도와주었다. 그것은 차량감독소 일군들의 소행과 수고를 잊지 말자고 유치원건설이 시작된 날부터의 일을 빠짐없이 적어둔 건설일지였다.

《2014년 3월 28일 건물지붕기와 철수, 3월 30일 건물벽체 허물기》…

건설일지의 이런 짤막한 기록들과 함께 유치원원장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취재수첩에 옮기였다. …

차량감독소자체의 힘으로 연건평이 600㎡가 넘는 2층짜리 유치원을 현대적으로 건설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낡은 건물을 들어내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공사량은 아름찼고 건설에 필요한 자재는 세멘트만해도 수백t에 달하였다.

하다면 한 당세포의 당원들이 강재, 목재를 비롯한 건설자재를 자체로 해결하여 수용능력이 큰 현대적인 유치원을 일떠세운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만약 건설에 들어갈 로력이나 자재, 자금부터 생각하며 타산을 앞세웠다면 그런 힘에 부치는 일을 스스로 맡아하지 못하였을것이다. 당의 뜻을 높이 받들려는 티없는 충정,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지켜가려는 억센 의지, 후대들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간직하고있었기에 그들은 유치원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수 있었다.

유치원을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건설할것을 결심하고 수도의 김정숙탁아소와 경상유치원을 돌아본 후 설계가들과 함께 며칠밤을 새워 유치원설계도면을 완성하였으며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정으로 가슴을 끓이면서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 달려가 로동자들의 일손도 돕고 그들을 불러일으켜 100t에 달하는 세멘트와 8t의 강재를 비롯한 많은 건설자재를 구입하여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킨 소장 김승운동무, 하루에도 몇백리길을 이어가며 1만장에 달하는 벽돌과 100t의 세멘트, 3t의 고회석 등 많은 건설자재를 구입보장하여 유치원건설이 중단없이 진척되도록 한 지도원 최명호동무, 후대들을 위한 일에 네 몫, 내 몫이 따로 있는가고 하면서 스스로 일감을 맡아안고 건설에 힘과 열정을 다 바친 차량감독원 문영철, 김길수, 김대홍, 박철성, 오형철, 리상철, 최명철, 리현철동무를 비롯한 세포당원들의 뜨거운 마음이 바로 유치원의 초석이 되고 기둥이 된것이다.

《2015년 7월 11일 원아들의 잠방에 2층침대 설치》

건설일지의 이 기록엔 출장중이던 김승운동무가 한밤중에 건설장에 불쑥 나타난 사연도 깃들어있다. 그때 양덕에서 평성으로 불원천리 달려온 김승운동무를 보고 야간작업을 하던 차량감독소 일군들은 저으기 놀랐다. 그가 타고온 자동차에 2층침대가 실려있었던것이다.

《이것때문에 밤중에 수백리길을 왔단 말입니까?》

김승운동무는 손을 내저었다.

《밤중이 다 뭐요. 새벽에라도 와야지. 어서 부리기요. 조립만 하면 되오.》

2층침대로 말하면 유치원건설을 시작할 때 그가 아이들이 좋아하게 동심에 맞는 새 침대도 꼭 놓아주자고 하면서 자진하여 맡은것이였다. 한개 단위 사업을 책임진 바쁜 몸이지만 그처럼 출장중에도 현지의 로동자들과 함께 침대를 만들면서 유치원건설에 헌신분투하는 그의 이신작칙의 모범은 집단을 불러일으키는 말없는 선동이 되군 하였다. 늘 건설장에 나와 미장도 하고 용접도 하면서 유치원건설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가던 그가 어느날 지붕재를 싣고 왔을 땐 모두가 눈시울을 적시였다. 자동차적재함보다 긴 철판기와가 수송도중에 휘여들가봐 한끝을 바줄에 걸고 두손으로 당기며 수십리길을 오느라 땀투성이가 된 그를 본 유치원원장은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고 하면서 눈물을 머금었다.

그날 김승운동무는 어떻게 말했던가. 이제 아이들이 넓은 지붕밑에서 그림도 그리고 밥도 먹고 잠도 잘 생각을 하면서 오니 꽃바람을 맞는 기분이라고 한 그 말에서도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가리지 않고 고생도 락으로 삼는 우리 시대 일군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엿볼수 있는것이다.

《2015년 8월 14일 현판홀과 물놀이장, 종합놀이장에 무리등 설치》

건설일지의 이 기록엔 또 어떤 일이 잇닿아있던가.

건설의 나날 아이들이 탈 미끄럼대도 만들어 설치하고 무슨 흠이 있을세라 직접 타보면서 유치원을 잘 꾸리는데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던 최명호동무가 어느날 3색무리등들을 안고 나타났다. 모두가 환성을 올렸다.

《이거 정말 멋있구만. 어떻게 무리등생각을 다했소?》

과묵한 최명호동무가 웃음만 짓고있는데 그가 집에서 안해와 나눈 말을 전하고싶은듯 무리등들은 반짝거리였다.

《여보, 생각했던것보다 더 멋진걸 마련했구만. 정말 잘했소.》

《그런데 이 무리등들이 농촌유치원에 잘 어울릴가요?》

《유치원엔 제일 좋은것이 제일 어울리는게 아니겠소.》

…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

후대들이야 어찌되든 자기만 잘살면 된다는 극단적인 개인리기주의가 만연하는 사회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우리 사회 인간들의 생활원칙, 열화같은 후대사랑이 비껴있어 무리등들은 그리도 아름답지 않았던가.

지난 7월 유치원원장은 한 차량감독원의 얼굴을 뜨겁게 그려보며 건설일지에 이렇게 썼다.

《김호철차량감독원 유치원에 새 풍금 설치》

이와 관련한 인상적인 이야기도 있다. 김호철동무가 유치원에 풍금도 좋은것으로 갖추어줄것을 결심하고 새 전자풍금을 가져다놓은 후였다. 한 꼬마의 장난질에 풍금이 그만 고장났다. 교양원은 차량감독원동지의 가정에서 품들여 마련해준것인데 손상되였다고 하면서 몹시 미안해하였다.

《그게 무슨 손상이겠소. 아이들때문에 당하는 손상이라면 늘 웃으며 받아들이겠소.》

김호철동무는 이러며 그길로 풍금을 메고가 몇날을 바쳐 손색없이 수리해가지고왔다. 그리고는 좋아라 풍금에 마주앉는 아이들을 보며 속으로 이런 노래구절을 외웠다.

…

밝게 웃어라 활짝 피여라
너희들은 우리의 기쁨
아 내 사랑 다하리라 후대들을 위하여

이 노래를 즐겨부르며 명절날도 바쳐 유치원의 체육기재들에 정성다해 도색을 하고 수백kg의 질좋은 외장재도 마련해온 김호철동무가 하루는 유치원원장에게 색갈고운 바께쯔들을 들려주었다.

《제가 전번에 그만 물바께쯔를 놓쳤댔는데 오늘에야 마음이 놓입니다.》

유치원원장은 가슴이 뭉클해져 그의 손을 부여잡았다.

《며칠전엔 술한 집기류를 가져오더니 또 이렇게…

이러다 감독원동무의 집재산을 다 들어내오겠어요. 이젠 제발 그만하세요.》

김호철동무의 가슴에 그때 무엇이 타올랐던가. 후대들을 위해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을 때 조국의 앞날이 더 밝아지고 우리의 투쟁과 생활이 더 큰 가치를 가진다는 신념이 아니였던가. 그것은 물심량면의 성의를 다하여 유치원건설을 떠민 차량감독원 윤광영, 남춘석, 안철남, 조경호, 김철, 김정혁, 최준식동무를 비롯한 모든 당원들의 일치한 생각이기도 하였다.

지난 8월 마침내 새 유치원이 완공되여 온 농장의 기쁨속에 개원식을 한 날 유치원교양원들은 차량감독소 일군들에게 이젠 헤여져야 하니 정말 섭섭하다고, 사진이라도 한장 찍자고 하였다. 그때 김승운동무는 말하였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오겠는데 무슨 작별인가고.

그 한마디 말에서도 차량감독소일군들이 지닌 후대사랑의 열도를 뜨겁게 느끼며 유치원교양원들은 김승운동무가 친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들이 리용할 물놀이장의 공이며 놀이감, 밥그릇과 숟가락도 자기 손으로 하나하나 골라 제일 좋은것으로 마련하던 모습을 다시금 그려보았다. 유치원건물 정면벽에 새긴 글을 가까이에서, 멀리에서 살펴보고 또 살펴보며 자리를 못 뜨는 김정호동무를 보면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글발을 색이 바래지 않는 색돌알로 창작완성하는데 지혜와 열정을 쏟아부으며 세포당원들을 유치원건설에 불러일으키던 그의 모습을 되새기였고 건물벽체가 매끈한지 쓸어보는 장충조동무며 세면장의 수도꼭지들이 정상인가 다시 틀어보는 박철성동무를 두고서는 그들이 정성들여 마련한 마감건재를 가지고 건설장에 달려오던 일을 잊지 못해하였다.

유치원건설에 적극 헌신한 검열원 김철남, 림인철동무들과 당원들의 뒤를 따라 후대들을 위한 일에 뜨거운 진정을 바친 차량감독소 종업원 백선희동무의 소행도 교양원들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다.

차량감독소의 당원들은 축하의 꽃 한송이마저 사양한채 조용히 농장을 떠났다. 누구나 감탄하고 놀라와하는 훌륭한 유치원을 일떠세우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소장 김승운동무를 비롯한 평안남도의 차량감독소 일군들은 그처럼 지난 기간 소문없이 후대들과 인민들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찾아하였다.

큰물에 다리가 떠내려가 먼길을 에돌아다니는 인민들의 불편을 가셔주기 위해 새 다리도 놓아주고 혁명사적지, 혁명전적지의 강사들도 적극 도와주었다. 애육원원아들과 영예군인들의 생활에도 지극한 정성을 고이였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으로 그들이 묵묵히 새겨온 헌신의 자욱들은 당과 조국, 인민의 기억속에 빛나고있다.

인민의 복무자인 당원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영광과 행복은 없다.

본사기자 박 철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선군시대 모범학습강사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초급선전일군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휴식을 적게 하고 잠을 덜 자더라도 맡은 분공을 수행하기 위해 품과 노력을 많이 바쳐야 하며 거기에서 혁명가의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껴야 합니다.》

주체의 사상론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고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는 선군시대 모범학습강사들을 아래에 소개한다.

덕천시계급교양관 학술원 안동원동무

23년간 학습강사로 사업해오고있는 덕천시계급교양관 학술원 안동원동무의 사업에서 특징적인것은 강의준비이자 실효성의 높이라는 관점에서 여기에 큰 품을 넣고있는것이다.

그는 그 어떤 주제의 강의이건 제강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한가지 자료라도 새로운 자료, 현실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자료를 잘 갖추기 위해 늘 애써 노력하였다.

올해 정초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대한 강의를 할 때에도 그랬다. 올해 시에서 농사를 잘 짓자면 물절약형농법을 받아들이는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 그는 중앙과학기술통보사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물절약형농법과 관련한 세계적인 추세와 발전동향, 물절약형농법의 과학기술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해당 일군들을 만나 물절약형농법을 시안의 협동농장들에 받아들이기 위한 방도적인 문제까지 파악한 다음에야 연락에 나섰다. 이렇게 품들여 준비한 강의였기에 실효는 대단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계급적자각을 더욱 높여주기 위한 강의를 할 때에도 그랬다. 그는 우선 덕천시에서 감행한 미제침략자들의 만행자료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시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덕천땅에서 오래동안 살고있는 주민들을 만나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강의내용에 첨부하였다.

새로 발굴한 자료들을 안받침한 강의의 실효는 컸다.

그의 강의를 통하여 덕천시계급교양관 강사들은 자기들의 강사활동에 리용할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알게 되였다. 그에 따라 강의의 수준도 훨씬 높아지게 된것은 론할 여지가 없다. 하기에 덕천시계급교양관 강사들은 도에서 진행된 강사들의 강의경연에서 우승한데 이어 올해 전국적인 계급교양관강사들의 강의경연에서 또다시 우승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강사의 실력이자 강의의 실효이다. 이것은 그의 주장이다.

그의 집에는 1 450여건의 5대교양자료와 500여건의 상식자료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자료들이 한방을 채우고있다. 학술원이며 학습강사인 그가 밤을 지새우며 마련한 그 하나하나의 자료들은 강의의 실효를 높이기 위한 귀중한 밑천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실록을 날자별로 보여주는 위대성교양자료를 만들어놓고 강의시작전에 리용하고있는 그의 경험은 시안의 학습강사들속에 일반화되였다. 또한 그는 140여차의 시범강의와 안내강의, 8차의 경험발표회에 출연하여 시안의 학습강사들의 수준을 높이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하기에 덕천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그를 가리켜 《능력있는 학습강사》라고 부르며 따르고있다.

본사기자 손 영 희

은천군 신창협동농장 제3작업반 강상범동무

우리 학습강사!

이것은 은천군 신창협동농장 제3작업반의 강상범동무에 대한 작업반원들의 친근한 부름이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보자.

강상범동무는 지난 24년동안 작업반원들을 정신력의 강자로, 당의 농업정책관철의 열혈투사들로 키우는데 적극 이바지한 유능한 학습강사이다. 그의 강사활동에서 특징적인것은 높은 실력, 뜨거운 인정미, 불같은 헌신이다.

강상범동무가 작업반원들앞에서 첫 강의를 진행했을 때였다. 제딴에는 강의를 잘하느라고 하였지만 응당한 실효를 보장하지 못했다. 작업반원들의 얼굴빛에서 그것을 읽을수 있었던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 그는 자신의 강의수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였다. 강의에 대한 일군들과 작업반원들의 의견도 들어보았다. 그 과정에 그는 강의의 실효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강사의 실력이 결정한다는것을 통절히 느끼게 되였다.

그는 지체없이 실력제고를 위한 학습전투에 들어갔다. 일터로 오갈 때나 휴식참에도 그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하루일을 마친 깊은 밤에도 그의 집에서는 불이 꺼질줄 몰랐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당정책을 체계적으로 깊이 학습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교양자료들과 우리 당의 선군정치와 관련한 도서들, 경제와 문화, 력사, 지리에 대한 학습도 계획적으로 진행하며 다방면적이고 폭넓은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불같은 정열을 쏟아부었다. 이렇게 쌓은 실력은 그대로 강의의 실효로 나타났다.

그의 강사활동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뜨거운 인정미로 사람들을 이끌어나가고있는것이다. 그는 이것도 중요한 강사활동으로 보았다.

농사일에 전심하지 못하고있던 한 농장원을 꾸준히 교양하고 이끌어주어 그를 혁신자로 키운 사실을 비롯하여 강상범동무가 뜨거운 진정을 바쳐 작업반원들을 이끌어주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불러일으킨 이야기들은 많다.

그의 강사활동의 특징은 다음으로 이신작칙이다. 그의 강의는 연락에서만 진행되지 않는다. 실천적모범을 보이는것 역시 학습강의로 여겼다.

올해와 같이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강상범동무는 포전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오를 이끌어 물절약형농법을 적극 받아들일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을 실천으로 확증하였다. 하기에 그를 가리켜 작업반원들이 《우리 학습강사》, 《우리 당세포비서》, 《팔방미인》이라고 늘 존경하며 따르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비록 겉모양은 소박하고 수수해도 우리 당의 믿음을 한생의 가장 큰 재부로 간직하고 대중을 교양하고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데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가고있는 이런 당초급선전일군의 모습은 얼마나 고결한것인가.

본사기자 채 인 철

올해 평양산원에서 12쌍의 세쌍둥이, 네쌍둥이 출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가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인민적인 보건제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새해진군이 시작되던 지난 1월 16일 아침 남포시의 김혜경녀성이 448번째로 되는 올해의 첫 세쌍둥이를 낳은것으로부터 평양산원에서는 김형권군의 세쌍둥이와 개천시의 세쌍둥이, 강계시의 세쌍둥이 등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11쌍의 세쌍둥이가 태여났다.

지난 11월 3일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살고있는 평범한 로동자인 리봄향녀성이 낳은 네쌍둥이까지 합하면 올해 12쌍의 세쌍둥이, 네쌍둥이가 태여난것으로 된다.

리봄향녀성이 낳은 딸 네쌍둥이의 현재 몸무게는 둘째가 제일 작지만 어머니당의 혜택과 평양산원 의료일군들의 정성에 의해 현재 잘 자라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드높은 로력성과로 맞이할 일념안고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고있는 이때 평양산원에서 네쌍둥이가 태여난것은 실로 의미깊은 일이다.

세쌍둥이, 네쌍둥이들을 낳은 산모들은 한달동안 평양산원에서 보약을 써가며 건강관리를 보장받고 아기들은 몸무게가 4kg이 될 때까지 국가가 의무적으로 키워준다. 그 모든 비용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있다.

실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다.

하기에 네쌍둥이의 어머니 리봄향녀성은 옛날에는 세쌍둥이를 낳으면 겨 석섬에 시래기를 던져주라고 하였다. 한것은 두줄기밖에 없는 어머니의 젖으로는, 게다가 가난과 굶주림에 한 아이도 제대로 키울수 없는 삶의 막바지에서 헤매던 그 세월에는 세쌍둥이가 무리죽음의 참사를 빚어내는 천대와 멸시의 대상이였기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 딸 네쌍둥이와 나는 온 나라 녀성들이 친정어머니라고 부르는 아기들의 궁전인 평양산원에서 꿈에서도 생각지 못했던 행복을 누리고있다고 말하였다.

올해에 태여난 세쌍둥이, 네쌍둥이는 지금 육아원과 평양산원의 보육기에서 건강을 보호받으며 무럭무럭 자라고있다.

현재 평양산원 2산파에는 황해북도 중화군과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온 두명의 녀성이 세쌍둥이임신으로 확증되여 입원하여 의료혜택을 받고있다.

세쌍둥이, 네쌍둥이의 출생이 한 가정의 기쁨으로, 온 나라의 경사로 되고있는 우리 사회, 하기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앞으로도 평양산원에서는 온 나라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며 나라가 흥하는 이런 경사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오 은 별

최우수제품들에 12월 15일품질메달 수여

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이 제일이라는 신념을 간직하고 전체 인민이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속에 주체104(2015)년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최우수제품들에 12월15일품질메달이 수여되였다.

선흥식료공장에서 생산한 파일빵, 영양단묵, 종합영양강정 등과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에서 만든 사과단물은 맛있고 영양가가 높은것으로 하여 누구나 즐겨찾는 식료품으로 되고있다.

대동강식료공장, 강계포도술공장의 고려술, 인풍술은 그 향기와 색갈, 맛이 고유하고 독특하여 유명해졌다.

어머니당의 사랑속에 날로 문명한 생활을 누리고있는 우리 인민들속에서 호평과 수요가 높은 경질유리그릇과 신선로, 놋국수그릇, 놋밥그릇, 놋수저는 질도 좋고 쓰기에도 편리하여 명제품으로 되고있다.

강계고려약가공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가시오갈피엑스, 삼지구엽초엑스를 비롯한 고려약들이 치료효과가 높아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있다.

12월15일품질메달을 수여하는 모임이 22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있었다.

리철진 국가품질감독위원회 위원장, 조영철 식료일용공업상, 성, 중앙기관, 최우수제품생산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임철웅 내각부총리가 발언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로작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일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고 이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의도를 받들고 제품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생활상요구와 지향에 맞는 새 제품들을 더 많이 개발완성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어 국내최우수제품으로 평가되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18가지 제품들에 12월15일품질메달과 증서가 수여되였다.

모임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인민무력부에서 주조 무관단을 위하여 영화감상회 마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4돐에 즈음하여 인민무력부에서는 22일 주조 무관단을 위하여 영화감상회를 마련하였다.

영화감상회에는 무관단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선인민군 군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부대들을 끊임없이 찾고찾으시며 인민군대가 조국의 안전과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준엄한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내용을 수록한 우리 나라 기록영화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2) 《조국수호의 전초선에 계시여》를 감상하였다.

몽골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표단 출발

몽골을 방문하기 위해 리길성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표단이 22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몽골림시대리대사가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그 어떤 제재와 압력도 우리를 놀래울수 없다

바야흐로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각 미국이 또 한차례의 히스테리적인 대조선대결광기를 드러내고있다. 우리의 무력, 군수, 무역기관들과 일군들지어 외교관들까지 제재명단에 올려놓은것이다.

그러고보면 미국은 이해를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놀음으로 떼고 제재책동으로 마감짓고있다. 미집권자 오바마가 우리에게 추가제재를 가하라는 대통령행정명령을 선포한것이 새해가 시작된 다음날인 지난 1월 2일이였다. 올해 첫 청문회대상에 우리 공화국을 올려놓은 미국회 하원은 행정부관계자들을 불러들여 우리에 대한 제재와 압박실현방도를 찾는데 열을 올리며 북닥소동을 피웠다. 1년의 날과 달들을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고립의 포위망, 압살의 봉쇄망을 더 바싹 조이는데 미쳐날뛴 미국이 년말에까지 제재책동에 나선것은 아메리카제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더욱더 횡포무도해지고있음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제재책동은 악랄성과 비렬성, 집요성과 지속성에 있어서 동서고금에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조선민족이 8.15해방의 기쁨속에 잠겨있던 그 시기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미제는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해보려고 비렬한 제재책동에 매달려왔다.

1950년 6월 25일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제는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발동하여 우리 공화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를 강압통과시켰으며 6월 28일에는 우리에 대한 수출을 전면금지하였다. 같은 해 12월 17일에는 우리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국》으로 선포하고 모든 경제관계를 단절하였다.

1951년에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공화국과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 거기에 10배의 고률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무역협정연장법》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그후 미국은 별의별 악법들을 휘둘러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였다. 특히 미국은 우리의 자위적인 핵시험과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를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추종세력들과 야합하여 국제적관도에서 새로운 제재책동을 강행하는데 나섰다. 미국의 사촉하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조작된 반공화국《제재결의》들은 허다하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우리 공화국에 대해 감행하고있는 제재내용을 보면 군사분야는 더 말할것도 없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자로부터 주요공장설비, 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거래를 제한, 금지시킨것이다. 미제는 화학공업에 필요한 설비들은 2중용도로 리용될수 있다, 화장품원료는 화학무기에 쓰일수 있다, 쌀은 군량미로 전용될수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각방으로 막아나섰다.

현재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해 적용하고있는 각종 제재관련법과 조치들은 무려 수백가지에 달한다. 이러한 법들은 서로 겹쳐져 보완관계에 있으며 설사 어느 하나를 해제한다고 해도 무의미하다.

실례로 미국이 우리에 대한 《수출관리법》적용을 철회한다면 그것을 《수출입은행법》으로 대신할수 있게 되여있다. 2008년 미국이 《핵포기》를 전제로 우리에게 억지로 씌워놓았던 《테로지원국》감투를 벗겼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테로지원국》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수출관리법》과 《수출입은행법》, 《무기수출통제법》, 《대외원조법》 등은 사회주의국가나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 그리고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확산국》이라는 구실밑에 가하고있는 제재에다 포함되는것들이므로 그것은 빈말뿐이다.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은 추종국가들과 어중이떠중이들 지어 국제기구까지 발동하여 발악적으로 감행하는 집단적인 강도행위로서 가장 오랜 기간 그리고 대외경제관계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벌어지는 끈질기고도 전면적인 경제봉쇄책동이다.

미국이 수십년세월 집요하게 벌리고있는 반공화국제재책동의 궁극적목적은 하나이다.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질식시켜 우리가 선택한 사상을 거세하고 우리가 세운 제도를 허물자는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제재도 압력도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일떠선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꺾을수 없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허물수 없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국이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을 무참히 파괴하고 《조선은 100년이 걸려도 일떠서지 못한다.》고 떠벌이였지만 우리 인민은 그 빈터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웠다. 적대세력의 가장 포악하고 비렬한 제재속에서도 우리 공화국은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자기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날에날마다 억세여지는것이 우리의 무진막강한 국력이다. 올해만 놓고보아도 지난 4월에는 자체로 만든 경비행기를, 5월에는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6월에는 신형반함선로케트의 실전배비를 공개함으로써 자위적국방공업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바로 얼마전에는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임을 세계앞에 다시금 선언하였다.

이를 두고 적들까지도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전략무기들을 독자적으로 만들어내는 북조선의 국방공업때문에 반공화국제재가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있다고 개탄하고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유엔성원국들이 《제재결의》리행을 회피하고있는 현실은 미국주도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얼마나 허황한것인가를 실증해준다.

미국은 2006년 우리 군대가 자위를 위해 진행한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문제시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를 꾸며낸 때로부터 5차례나 반공화국《제재결의》를 조작하였다. 우리 공화국의 제재대상들과 상업 및 금융거래를 하지 말데 대하여 떨거하여 유엔성원국들에 내리먹인 지침만해도 32건이나 된다.

하지만 유엔성원국들중 81.8%에 달하는 나라들이 아직까지 그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은 미국의 부당한 반공화국제재놀음이 정의와 량심을 귀중히 여기는 광범한 민심의 회의심을 자아내고있음을 립증해준다.

사실상 미국주도의 반공화국제재소동으로 아부재기를 치는것은 그 추종세력들이다.

남조선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남조선괴뢰들은 미국상전의 날강도적인 제재조치에 편승하여 금강산관광까지 중단하였지만 오히려 저들만 막대한 손실을 보고있다고 투덜대고있다.

금강산관광중단으로 남조선의 관련기업들은 7년동안에 10억 15만US$의 손실을 보았다. 남조선강원도 고성군만 하여도 400여개의 숙박소들이 폐업한것 등 군경제가 통채로 망했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 조선반도정세가 첨예화될 때마다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면서 경제침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있다.

보다 가련한것은 미국이다. 조미대결의 7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그처럼 덩지큰 미국이 그따위 압박이나 제재에 휘기를 들고나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라는것을 전혀 모르고있는것이다. 더우기 기막힌것은 망조가 비낀 자기 처지, 무너진 로마제국과 같은 운명이 지척에서 기다리고있다는것도 의식하지 못한채 그 누구를 《붕괴》시킨다고 희떱게 놀아대고있는것이다.

대결의 상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면 패배는 불가피한 법이다.

앞날의 비운을 안고있는 날강도 미제가 자기의 가련한 처지도 망각한채 우리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에 사로잡혀 무분별한 대조선적대시책동에 매달릴수록 미국은 더욱더 헤여날수 없는 자멸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것이다.

천만부당한 미국의 제재소동은 우리 로동계급의 자력갱생정신과 자강력을 더욱 분발시키며 우리 공업의 국산화비률만 높아지게 할뿐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생을 바쳐 마련해주신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무서운것도 두려운것도 없다.

오늘도 래일도 이 땅우에서는 원쑤들을 전률케 하는 자력갱생의 마치소리가 더 높이 울릴것이다.

배 금 희

여러 나라에서 인터네트에 특집

《태양은 영원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4돐에 즈음하여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가 8일 인터네트홈페지에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태양은 영원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안고 전체 조선인민이 피눈물을 흘리며 자애로운 어버이를 목메여 부르던 그때로부터 4년세월이 흘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조선의 통일과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였다.

그이께서 김일성주석의 필생의 념원이였던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한 길에서 천리혜안의 예지와 열화같은 민족애로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공동선언들을 마련하시여 6.15통일시대를 펼쳐주신것은 민족사에 불멸할 애국업적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조선반도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칭송열기가 차고넘쳤다.

글은 남조선의 각계가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자애로운 스승, 조국통일의 태양으로 열렬히 칭송한데 대하여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나라의 분렬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주하시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조선민족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할것이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4돐에 즈음하여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가 10일 인터네트홈페지에 특집하였다.

홈페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시는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김정일국방위원장과 오늘의 조선》,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은 영원히 빛난다》,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 김정일동지》, 《영원한 선군의 아들》,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불멸의 업적》 등 절세위인의 혁명업적과 혁명생애를 칭송하는 글들을 편집하였다.

홈페지는 맺는글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위업의 계승자이신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조선로동당을 불패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고 조선인민군을 그 어떤 원쑤들의 침략책동도 단매에 짓부실수 있는 위력한 방어수단과 공격수단을 다 갖춘 혁명강군으로 키우신 걸출한 령도자이시다.

오늘 조선인민은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탁월한 선군령장을 높이 모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군은 언제나 필승불패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은 인권피고석에 스스로 나서라

국제무대에서 《인권》에 대해 미국만큼 호들갑을 떨며 부산을 피우는 나라는 없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미국보다 더 한심한 인권기록을 가지고있는 나라는 없다.

이제 우리는 미국의 인권실태에 대하여 자국언론들이 어떤 눈으로 보는가 하는 단면을 펼쳐본다.

최근 미국뉴스웨브싸이트 《트루스디》은 미국사회에서 극단에 이른 부익부와 빈익빈, 인종차별로 하여 대부분 사람들이 절망과 비관에 빠져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다는 글을 실었다.

《20명의 억만장자들 미국민들 전재산의 절반이상 소유》라는 제목의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잡지 《포브스》 최신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20명의 갑부들이 5 700만세대들에서 살고있는 1억 5 200만명의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있다.

미국사회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은 인종차별에서 더욱 우심하게 나타나는데 가장 잘사는 100세대는 아프리카계미국인들의 총재산을 릉가한다. 2009년 영국의학신문이 발전된 나라들에서 자살건수가 많은것은 경제생활난에 시달린 사람들의 극단적행동에 기인된다고 발표한바 있는데 실지 미국에서 한해에 약 20만명의 죽음은 경제적요인으로 산생된것이다.

뉴스웨브싸이트는 이러한 사실은 아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통계자료들을 반복하여 발표하는것은 사회적불평등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각성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을대로 썩어 악취를 풍기는 미국사회의 일단을 비교적 정확히 까밝힌 글이라고 볼수 있다.

미국정객들은 자국이 《만민평등사회》라고, 자기 나라에서 인종주의가 자취를 감추었다고 희떱은 수작을 곧잘 늘어놓고있다. 부르죠아어용나팔수들이 또한 입을 모아 미국을 《자유세계의 모델》로 선전하고있다. 그러나 그들이 입버릇처럼 외워대는 《만민평등》이란 한갖 저들의 정치적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미국에서 인종주의가 자취를 감추었다는것 역시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다. 인간의 가장 초보적인 권리인 로동의 권리마저 빼앗긴 실업자들이 득실거리고 집없는 사람들이 한지에서 밤을 지새며 죽어가고있는 나라, 살인과 강탈 등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소수인종 및 민족주민들이 범죄의 주요 피해자로, 사법당국의 편견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련이어 일어나는 흑인들에 대한 백인경찰들의 사살사건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경찰은 올해에 상반년만 하여도 500명이 훨씬 넘는 자국민들을 살해하였다.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와 지역들이 있지만 미국처럼 각종 인종주의범죄가 만연하고 경찰들이 무방비상태의 사람들을 마구 살해하는 최악의 인권유린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미국이야말로 인종과 피부색때문에 차별과 멸시를 당하고 언제 총에 맞아죽을지 몰라 공포에 떨어야 하는 인종적모순이 폭발상태에 이른 세계최악의 인간생지옥, 인간증오사상과 무차별적인 살륙만이 횡행하는 인권말살지대이다. 해마다 번지지 않고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다른 나라들더러 인권제도를 개선하라고 목이 쉬도록 고아대는 미국의 인권실태는 바로 이러하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도 샌다고 인권유린의 왕초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하는 짓들이 또한 세계를 경악케 한다. 미국은 사상과 제도, 종교와 문화가 다르다고 하여, 일련의 나라들이 자주권을 중시하고 고유한 사회정치제도를 발전시켜나간다고 하여 《인권유린》의 감투를 씌우고있다. 국제무대에서 쩍하면 《인권》소동을 일으키며 다른 나라들에 압력을 가하고 나중에는 군사적간섭까지 일삼고있다.

그 후과는 실로 막심하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피난민행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있는것은 미국의 집요한 간섭과 파괴암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지역나라들에서 정권이 붕괴되고 사회적안정이 혹심하게 파괴된것과 관련된다.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의 인권실태에 대해 미국은 점수를 매기며 훈시질을 해왔는데 자국의 인권실태에 대하여 특히는 세계도처에서 일삼아온 인권유린행위에 대하여 도대체 어떤 점수를 매길수 있겠는가.

미국 워싱톤에 있는 케이토연구소는 미국이 더이상 세계앞에서 미국식《자유》를 떠들거나 인권에 대해 운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제사회는 《인권재판관》행세를 하는 미국에 응당한 경계의 눈초리를 돌리고있다.

로씨야신문 《쁘라우다》는 미국의 한 도시에서 있은 총격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총기류범죄는 그 누구도 막을수 없는 필연이며 미행정부가 제 집안문제를 망각하고 다른 나라들에만 신경을 쓰기때문에 미국인들의 신변안전이 담보될수 없게 되였다고 평하였다.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세계최대의 인권유린국인 미국은 악취가 나는 제 집안의 인권허물부터 바로잡아야 하며 주제넘는 《인권재판관》행세를 그만두고 인권피고석에 스스로 나서야 한다.

리 현 도

《싸드》배비를 노린 교활한 여론전

미국의 군사전문가들과 연구단체들이 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싸드》)의 남조선배비필요성에 대해 겨끔내기로 떠들어대고있다.

최근 미국민간연구단체인 미싸일방위지지련맹이 미국회에서 《태평양미싸일방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 토론회에서 련맹리사장은 하층지상방위요격미싸일인 《PAC—3》은 단지 한두개 도시만 방어할수 있는 체계로서 작전반경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하면서 《싸드》야말로 《북조선의 미싸일위협》으로부터 남조선을 방어할수 있는 가장 효률적인 수단이라고 력설하였다.

미국민간연구단체인 국가전략방위쎈터의 한 상급연구사, 이전 미국방성 미싸일방위국장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도 《북조선의 다양한 미싸일들을 포괄적으로 방어할수 있는 체계》는 《싸드》라고 하면서 그의 남조선배비필요성에 대해 제나름대로 떠벌였다.

지난 시기에 미국의 군사전문가들, 연구단체들이 《싸드》를 남조선에 배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들을 가끔 내돌리군 하였다. 그러나 지금처럼 집중적으로 나서서 악마구리 끓듯 한적은 없었다.

우연한 일이라고 볼수 없다. 미국지배층이 의도적으로 군사전문가들과 연구단체들을 내세워 그런 나발들을 불게 하고있다.

국제사회에 《싸드》의 남조선배비에 대한 면역을 조성하여 그를 어떻게 하나 실행해보려는 교활한 여론전의 일환이다.

《싸드》는 탐지거리가 4 000km이상되는 X대역레이다로 상대방의 군사적움직임을 세밀하게 추적할수 있다.

남조선에 《싸드》가 배비되면 우리 주변나라들이 종심에서 벌리고있는 군사활동들은 모두 미국에 로출된다. 그로 하여 주변나라들의 전략무력에 의한 억제력은 일방적으로 약화되거나 무력화됨으로써 미국과 주변나라들사이의 현존억제균형이 파괴되게 된다.

우리 주변나라들은 자기들의 내속을 말끔히 들여다보려는 미국의 시도에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남조선내부에서도 《싸드》배비에 대한 불만이 계속 터져나오고있다. 《싸드》배비가 곧 남조선을 핵위협속에 빠뜨리는 재앙거리로 되기때문이다.

세계 여러 나라 군사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사이에 군사적충돌이 일어나 확전되는 경우 《싸드》가 배비된 남조선은 핵참화를 들쓸수 있다, 로씨야와 중국이 《싸드》의 남조선배비가 위협계선을 넘는것으로 되며 남조선은 자기들의 핵공격대상으로 될수 있다고 경고하고있는것이 결코 우연치 않다고 평하고있다.

미국은 주변나라들의 강한 반발과 남조선내부에서의 불만으로 하여 《싸드》의 남조선배비를 감히 시도하지 못하고있다. 그렇다고 하여 그 시도를 뒤전에 밀어놓은것은 아니다.

미국이 《싸드》의 남조선배비필요성에 대해 더욱 여론화하고있는것이 그를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적우세를 한사코 부지해보려는 위험천만한 기도이다.

미국과 우리 주변나라들사이의 관계는 정치, 경제분야에서는 물론 군사분야에서도 호상 타협할수 없는 경쟁적수들간의 관계이다.

주변나라들은 군사력을 빠른 속도로 강화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배권을 무력화시킬수 있는 힘을 키우고있으며 실지로 지역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다. 그 나라들이 위성공격무기와 극초음속미싸일 등 첨단타격무기개발에 달라붙고있는것은 단적인 실례이다.

그로 하여 미국의 군사적우세는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고있다.

바빠맞은 미국은 로씨야와 중국을 뛰여넘는 군사기술적우세를 보장하며 우주공간에서 있을수 있는 전쟁에 대처하기 위한 우주전쟁작전쎈터를 올해중으로 내와 가동시키려 하고있다.

《싸드》의 남조선배비필요성을 여론화하고있는것도 경쟁적수들의 군사적움직임을 몽땅 내탐하고 사전대책을 세움으로써 그들에 비한 군사적우세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한사코 달성해보려는 음흉한 시도이다.

미국이 우리의 《미싸일위협》에 대해 떠들어대는것은 《싸드》의 남조선배비를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다. 세계의 적지 않은 언론들도 그렇게 주장하고있다.

미국이 《싸드》를 남조선에 배비하려고 교활하게 획책할수록 미국과 우리 주변나라들사이의 모순과 마찰은 더욱 심해질것이다.

리 경 수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전략로케트무력의 위력을 강조

로씨야전략로케트군 사령관이 최근 한 발언에서 전략로케트무력의 위력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현재 전개된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에 대한 정보를 평가한데 의하면 그것이 로씨야전략로케트군의 집중공격을 막아낼수 없는것으로 확인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새로운 특성을 가진 로씨야전략로케트군의 새세대 대륙간탄도미싸일종합체가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잠재적인 위협을 무력화시킬수 있다고 그는 언명하였다.

그는 2016년에 5개 련대에 20기의 대륙간탄도미싸일을 탑재할수 있는 《PC-24 아르스》대륙간탄도미싸일종합체가 추가적으로 배비될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적대시정책 규탄

이란동원군 사령관이 17일 한 연설에서 미국의 대이란적대시정책을 규탄하였다.

그는 미국이 핵합의가 이룩된 이후 거의 매달 이란을 반대하는 법안들을 채택하였다고 까밝히면서 이것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고 말하였다.

반테로투쟁성과

수리아정부군이 테로반대투쟁에서 전과를 확대하고있다. 16일 정부군은 라따끼야에서 반테로작전을 벌려 테로분자들의 진지들을 파괴하고 전략적인 산악지대를 장악하였다.

이에 앞서 14일 정부군은 디마스끄도의 동부교타지역에 폭격과 포격을 맹렬히 들이대여 이 지역을 차지하고 군용비행장을 탈환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요르단의 원유정제공장

로동개악을 위한 합의를 용납할수 없다, 민생파탄《정권》을 끝장내자

남조선 민주로총 로동개악저지를 위한 투쟁결의집회 진행

남조선신문 《로동과 세계》에 의하면 민주로총이 얼마전 《국회》주변에서 로동개악저지를 위한 투쟁결의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그동안 계속되여온 로동자들의 생존권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로동개악을 위한 법안을 강행적으로 처리할데 대해 합의함으로써 민중의 등에 또다시 칼을 꽂았다고 규탄하였다.

이제 로동자들이 할 일은 총파업으로 로동개악을 막고 현 《정권》을 끝장내는것뿐이라고 그들은 언명하였다.

그들은 오직 투쟁으로 보수 《국회》를 심판해야 한다고 하면서 12월의 《국회》앞을 로동자들의 투쟁광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집회에서는 결의문이 랑독되였다.

결의문은 여야가 로동개악법안의 강행처리를 합의한것은 로동자들의 뜻을 외면한 야합이며 또 하나의 날치기에 불과한것으로서 결코 용납할수 없다고 단죄하였다.

독재《정권》과 자본이 추진하는 로동개악을 위해 손을 잡은 정치세력을 반드시 심판할것이라고 결의문은 경고하였다.

결의문은 민중총궐기를 통해 로동개악, 민생파탄, 독재회귀에 대한 민중의 분노심을 당국에 똑똑히 알렸지만 《정권》이 이에 불법적인 폭력으로 대답해나섰다고 비난하였다.

폭력적인 진압으로 쓰러진 농민이 아직도 위급한 상태에 있지만 모르는체 하고 민주로총과 소속산별로조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을 이어가며 독재회귀의 야욕을 공공연히 드러내고있다고 결의문은 규탄하였다.

결의문은 로조원들이 총파업에 떨쳐나 로동개악을 막아내고 로조와 민중생존권을 지켜내며 민생파탄《정권》을 끝장내자고 호소하였다.

남조선목사들 시국선언문 발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최근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도지역의 목사 164명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민중총궐기투쟁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당국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은 현 《정권》이 민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력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더우기 집권자가 이에 항의하는 민중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들의 행동을 《테로》로 규정하며 이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언행과 행태를 일삼고있다고 선언문은 규탄하였다.

력사교과서《국정화》의 목적은 《유신》독재를 찬미하고 보수 《정권》이 영구집권하기 위한데 있다고 선언문은 폭로하였다.

또한 현 《정권》이 《국정화》와 로동개악책동에 분노한 민중의 11.14민중총궐기투쟁당시 물대포를 쏘아대며 폭력적으로 진압하였다고 하면서 경찰폭력에 의해 백남기농민이 사경에 처해있다고 선언문은 밝혔다.

선언문은 민중을 대상으로 전쟁을 치르듯이 탄압한 사태에 대해 집권자가 책임을 지고 백남기농민의 가족들을 찾아가 사죄해야 하며 경찰청장도 사퇴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총궐기집회이후 《정부》와 여당은 집회를 《불법집회》로 몰아대며 대대적인 공안탄압에 나서고있다고 하면서 민중을 신뢰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정권》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다는것을 당국은 기억해야 할것이라고 선언문은 지적하였다.

선언문은 무능한 《정권》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있는 로동자와 농민들이 민중총궐기집회를 기어이 성사시키기 위해 투쟁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재미동포들 남조선인민들의 3차 민중총궐기투쟁에 련대

재미동포들 남조선인민들의 3차 민중총궐기투쟁에 련대하여 시위

남조선 각계의 3차 민중총궐기투쟁에 련대하여 재미동포들이 18일과 19일 미국 로스안젤스와 워싱톤에서 시위투쟁을 벌렸다.

투쟁참가자들은 부정선거로 권력의 자리를 강탈한 《정권》의 반민중적인 통치를 반대하는 남조선 각계의 3차 민중총궐기투쟁을 지지하고 그에 련대한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 남조선에서 정보원을 포함한 권력기관이 총동원되여 부정선거가 강행된데 대해 그들은 비난하였다.

그들은 《박근혜는 합법적인 선거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다.》고 하면서 집권자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세월〉호 진상규명!》, 《력사교과서〈국정화〉 철회!》, 《로동개악 저지!》, 《공안탄압 중단!》, 《폭력〈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웨치며 파쑈독재《정권》의 반인민적악정을 규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51201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2-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